

---

2 0 2 5 학 년 도

---

# 6월 모의평가 독서 해설지

---

과두제적 경영 / 플라스틱 / 도덕 문장

---

화제를 중심으로 한 최대한의 납득  
같은 말에 집요하게 반응하며 이루어지는 정보량 줄이기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이해하는 하나의 추상적인 원리



**피렘의**  
**국어공작소**

**생각 워크북 <카테고리 나누기>**

2025.06 [4~7] 사회(경영학) '과두제적 경영' ☆☆

**1문단**

①정당과 같은 정치 조직이 민주적 방식과 절차로 운영되어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②그런데 민주적 운영 체제를 갖추었으면서도 실제로는 일부 소수에게 권력이 집중되어 있는 경우도 적지 않다. ③조직 운영에서 보이는 이러한 현상을 흔히 **과두제**라 한다. ④이는 정치 조직에서만 뿐만 아니라 기업 경영에서도 나타난다.

**①~③ #수식된 정의 제시**

정당과 같은 조직에서 민주적 운영 체제를 갖추었으면서도, 실제로는 일부 소수에게 권력이 집중되어 있는 경우를 '과두제'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핵심은 단순히 일부 소수에게 권력이 집중되어 있는 것뿐 아니라, '민주적 운영 체제를 갖추었으면서도' 그러하다는 것이죠? 초반부에 등장한 개념의 정의는 당연히 중요할 것이니, 이렇게 정확하게 인식하고 넘어갈 수 있어야 합니다.

**④ #화제 제시**

이러한 '과두제'는 정당과 같은 정치 조직에서만 뿐만 아니라, '기업 경영'에서도 나타난다고 합니다. 이 지문은 '과두제'가 '기업 경영'에서 나타나는 양상에 대해 설명하겠네요. 이렇게 화제를 정확하게 인식한 채로 넘어가도록 합시다.

**\*하이라이트 문장\***

④이는 정치 조직에서만 뿐만 아니라 기업 경영에서도 나타난다.

이 지문에서는 너무 당연해서 굳이 의식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인식이 되겠지만, 첫 문단을 읽고 화제가 무엇인지 생각해 보는 태도는 중요합니다. 지문 전체를 읽어 나갈 때의 기준을 제시하는 부분이니까요.

**2문단**

①모든 주주가 경영진을 이루어 상호 협력 관계를 기반으로 기업을 운영하며 의사 결정권도 균등하게 행사하는 경우에 이를 '**공동체적 경영**'이라 부르기도 한다. ②이런 기업에서 경영진은 모두 업무와 관련하여 전문성을 가지며, 경영 수익에 관련된 중요한 사항은 주주들이 공동으로 결정한다. ③그러나 기업의 규모가 성장하고 사업이 다양해지면, 소수의 의사 결정에 따른 수직적 경영으로 효율성을 지향하는 '**과두제적 경영**'으로 나아가는 일도 있다.

**①~② #수식된 정의 제시 #단어의 의미 살리기**

모든 주주가 경영진을 이루고, 상호 협력 관계를 기반으로 기업을 운영하며, 의사 결정권도 균등하게 행사하는 경우. 이렇게 모든 주주가 하나의 '공동체가 되어 기업을 '경영'하는 것을 '공동체적 경영'이라 부르기도 한다고 합니다. 단어의 의미를 살리면 그 정의를 확실하게 이해할 수 있겠죠?

**② #재진술**

이렇게 모든 주주가 균등한 의사 결정권을 가지는 경영진이 되려면, 당

상상력의 한계가 그 사람의 한계가 된다.

연히 모든 업무와 관련하여 전문성을 가지고 있어야 할 것이며, 이렇게 전문성을 가지고 있으니 경영 수익에 관련된 중요한 사항을 공동으로 결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의사 결정권을 균등하게 행사하는 '공동체적 경영'이 가능한 것이죠. 이렇게 당연한 말로 납득하며 읽을 수 있어야 합니다. 특히 사회 지문에서는 얼마나 많은 정보를 납득하는지가 성패를 갈라요.

**③ #수식된 정의 제시 #단어의 의미 살리기 #재진술 #화제의 흐름**

이렇게 '공동체적 경영'을 하던 기업도, 규모가 성장하고 사업이 다양해지면 '과두제적 경영'으로 나아갈 수 있다고 합니다. 이때 '과두제적 경영'을 '소수의 의사 결정에 따른 수직적 경영으로 효율성을 지향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는데요. 단어의 의미 그대로, '과두제'의 성질을 가지는 '경영'이기에 '소수, 수직적, 효율성'이라는 키워드가 제시된 것이겠죠? 앞에서 이해한 '과두제'의 정의를 바탕으로 '과두제적 경영'의 정의를 완벽하게 납득하고, 이제 본격적으로 화제에 대한 이야기를 할 것이라는 생각을 하며 읽어보도록 합시다.

**\*하이라이트 문장\***

③그러나 기업의 규모가 성장하고 사업이 다양해지면, 소수의 의사 결정에 따른 수직적 경영으로 효율성을 지향하는 '과두제적 경영'으로 나아가는 일도 있다.

앞에서 제시된 '과두제'라는 개념의 정의가 '과두제적 경영'으로 심화되는 모습입니다. 중요 개념의 정의를 연결 지으며 새로운 개념의 정의도 완벽하게 납득할 수 있어야 해요.

**3문단**

①**과두제적 경영**은 소수의 경영자로 이루어진 경영진이 강한 결속력을 가지면서 실질적 권한과 정보를 독점하며 기업을 운영하는 것을 말한다. ②이런 체제는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경영진을 중심으로 안정적 경영권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하여, 기업 전략을 장기적으로 수립하고, 이에 맞춰 과감하고 지속적인 투자를 할 수 있어서 첨단 핵심 기술의 개발에도 유리한 면이 있다. ③그리고 기업과 경영진 간의 높은 일체성은 위기 상황에서 신속한 의사 결정으로 효율적인 대처를 하는 데 도움을 주기도 한다.

**① #정의 제시 #카테고리 나누기**

'과두제적 경영'을 다시 정의하고 있습니다. 같은 개념의 정의는 결국 다 같은 말일 것이기에, 앞에서 제시한 키워드인 '소수, 수직적, 효율성'에 맞춰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먼저 '소수의 경영자'입니다. '소수'라는 키워드 그 자체네요. 이렇게 '소수의 경영자'로 이루어져 있으니, '강한 결속력'을 가진다는 것 역시 당연하게 납득할 수 있겠죠?

나아가 '실질적 권한과 정보 독점'은 '수직적'이라는 키워드로 정리할 수 있겠죠? '수직적 경영'이기에, '소수의 경영자'만이 실질적 권한과 정보를 독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소수, 수직적, 효율성'이라는 키워드를 일종의 카테고리로 인식하면서 정보를 처리해야 합니다. 결국 다 같은 말이에요.

**② #재진술**

이렇게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소수의 경영자'가 중심이 되면 '안정적 경영권 확보'가 가능할 것입니다. 능력 있는 소수가 같은 목표를 향해 경

영할 것이니 '안정적'이라는 것이죠. 나아가 '기업 전략의 장기적 수립'이 가능할 것입니다. 다수가 경영진이 되면 각자의 목표가 너무나 달라 장기적 전략 수립이 어려울 수 있지만, '소수의 경영진'은 '안정적'인 자신의 기반을 바탕으로 장기적인 전략을 짤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안정적'이고 '장기적'인 비전이 있다면, '과감하고 지속적인 투자' 역시 가능할 것입니다. 투자에 더 확신을 가질 것이니까요. 또한 '과감하고 지속적인 투자'는 첨단 핵심 기술의 개발에도 유리한 면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이렇게 '납득'하면서 읽어야 합니다. 정보를 '처리'한다는 느낌이 아니라, '납득'된다는 느낌이 있으면 이 모든 정보가 당연해집니다. 당연한 정보는 여러분의 머릿속에 확실한 기억으로 남을 것이고, 이는 선지 판단의 속도를 높이는 효과를 가져올 거예요.

### ③ #재진술 #카테고리 나누기

'소수의 경영진'이 '수직적 구조'의 상단에 위치하기 때문에, 기업과 경영진 간의 일체성이 매우 높을 것입니다. 이는 위기 상황에서 신속한 의사 결정으로 '효율적'인 대처를 하는 데 도움을 주기도 하겠네요. 이번엔 '효율성'이라는 카테고리화 관련된 정보가 제시된 것이죠? '소수'의 경영진이 '수직적' 경영을 하니 '효율적'인 여러 대처가 가능하다는 식으로 '납득'하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이처럼 '과두제적 경영'은 여러 장점을 가지고 있는데요.

#### \*하이라이트 문장\*

①과두제적 경영은 소수의 경영자로 이루어진 경영진이 강한 결속력을 가지면서 실질적 권한과 정보를 독점하며 기업을 운영하는 것을 말한다.

'과두제적 경영'이 다시 정의되고 있습니다. 새로운 정보라기보다는 앞에서 했던 정의를 더 자세하게 풀어써 주는 것에 불과할 것이라는 생각을 하며 납득할 준비를 해야 합니다.

#### 4문단

①그런데 대체로 주주의 수가 많으면 개별 주주의 결정권은 약하고, 소수의 경영진이 기업을 장악하는 힘은 크다. ②이를 이용하여 정보와 권한이 집중된 소수의 경영진이 사익에 치중하면 다수 주주의 이익이 침해되는 폐해가 나타날 수 있다. ③경영 성과를 실제보다 부풀려 투자를 유치한 뒤 주주들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히는 경우도 있으며, 기업 운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주요 정보들을 은폐하거나 경영 상황을 조작하여 발표함으로써 결과적으로 기업의 가치에 심각한 타격을 주는 사례도 종종 보게 된다.

### ①~② #재진술 #문제점 제시

'과두제적 경영'은 여러 장점을 가지고 있지만, 대체로 주주의 수가 많으면 개별 주주의 결정권이 약하고 '소수의 경영진'이 기업을 장악하는 힘이 크다고 합니다. 당연하게 납득할 수 있겠죠? '수직적 구조'에서 '효율성'을 위해 '소수의 경영진'이 권한과 정보를 독점하고 있기 때문에, 이들이 기업을 장악하는 힘이 다수의 주주보다 훨씬 센 것이죠. 우리가 알고 있는 대부분의 규모 있는 기업들이 다 그러할 것입니다.

이를 이용하여 '소수의 경영진'이 사익에 치중하는 경우, 다수 주주의 이익이 침해되는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합니다. 사실 그렇죠. '소수의

상상력의 한계가 그 사람의 한계가 된다.

경영진'이 모두 회사 이익만을 위해 움직일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너무 이상적이니까요. 이들이 회사의 이익보다는 사익에 치중하면 권한과 정보를 가지지 못한 다수의 주주들에게 큰 피해를 끼칠 것입니다.

### ③ #사례-원리 연결

구체적인 사례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경영 성과를 실제보다 부풀려 투자를 유치하면, 거품이 드러나 주주들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힐 수 있을 것입니다. 나아가 기업 운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주요 정보들을 은폐하거나 경영 상황을 조작하는 것도 가능하겠죠. 이는 기업의 가치에 심각한 타격을 주어 다수의 주주들에게 큰 피해를 끼치겠죠? 핵심은 '소수의 경영진'의 사익을 추구하다가 다수의 주주들에게 피해를 끼친다는 원리를 이해하는 것입니다. 여러 장점이 있던 '과두제적 경영'은 이러한 단점도 함께 가지고 있는 것이죠.

#### 5문단

①이러한 문제점을 완화하기 위해 기업이 경영자와 계약을 체결하여 급여 이외의 경제적 이익을 동기로 부여하는 방안이 있다. ②예를 들면, 일정 수량의 주식을 계약 시에 정한 가격으로 미래에 매수할 수 있도록 하는 스톡옵션의 권리를 경영자에게 부여하는 방식이 있다. ③이 권리를 행사할지 말지는 자유이고, 경영자는 매수 시점을 유리하게 선택할 수 있다. ④또 아직 우리나라에 도입되지는 않았지만, 기업의 주식 가치가 목표치 이상으로 올랐을 때 경영자가 그에 상응하는 보상을 받는 주식 평가 보상권의 방식도 있다.

### ① #해결책 제시

이렇게 '소수의 경영진'이 사익을 추구하여 기업 가치에 손상을 입히고 다수 주주들에게 피해를 주는 문제점을 완화하기 위해, 기업이 경영자와 계약을 체결하여 '급여 이외의 경제적 이익'을 동기로 부여하는 방안이 있다고 합니다. 급여 이외에도 경제적 이익을 제공한다면, '소수의 경영진'이 사익을 추구하기 위해 불법을 감수할 이유가 많이 사라질 것입니다. 모든 해결책은 결국 문제의 원인을 없애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 '소수의 경영진'이 '급여 이외의 경제적 이익'을 노리고 사익을 추구하는 것이 문제의 원인이라는 점에서 이를 보완하는 좋은 해결책이라고 할 수 있겠죠?

### ②~③ #사례-원리 연결 #수식된 정의 제시 #단어의 의미 살리기

'급여 이외의 경제적 이익'이라는 추상적인 원리를 이해시키기 위해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주고 있습니다. 먼저 '스톡옵션'입니다. 수식된 정의를 확인해 보니, 일정 수량의 주식을 '계약 시에 정한 가격'으로 미래에 매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네요. 이 권리를 행사할지 말지는 경영자의 자유이고, 경영자는 매수 시점을 유리하게 선택할 수 있습니다. 즉, '미래'라는 시점을 경영자가 원하는 시점으로 선택할 수 있는 것이죠. 단어의 의미 그대로, '스톡(stock=주식)'을 원하는 대로 행사할 수 있는 '옵션(option)'이라는 식으로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소수의 경영진'이 '스톡옵션'을 받는 경우, '과두제적 경영'이 가진 여러 장점을 심본 발휘하여 주가를 끌어올리기 위한 노력을 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 1주당 1,000원에 매수할 수 있는 '스톡옵션'을 가지고 있을 때, 경영을 열심히 해서 1주당 가격을 50,000원까지 올린다면 이를 1,000원에 매수하여 50배의 이익을 볼 수 있는 것이죠. 이 정도면 굳이 불법적으로 사익을 추구할 동기가 없겠죠?

**\*생각 심화\***

흔히들 '경영자'라고 하면 회사의 대표를 생각하기 마련이기에, 이들이 '급여'를 받는다는 것이 낯선 학생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주주/경영자'는 확연하게 구분되는 개념입니다. 물론 '주주'(=주식의 주인, 회사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회사의 주인)가 '경영자'일 수도 있지만, 주식을 가지지 않고 경영 행위를 위해 고용되어 급여를 받는 '경영자'를 따로 두는 경우도 많습니다. '주주'에 대해서는 2017학년도 9월 모의평가 '법인적 부인론' 관련 지문에서도 다루어졌고, 2022학년도 LEET언어이해 '소유와 지배의 분리' 관련 지문에서 '주주/경영자'의 구분을 다룬 적도 있으니 해당 지문들을 통해 추가적으로 학습하도록 합시다. 6월 모의평가에 등장한 개념이 수능에 또 등장하는 경우가 많으니깐요.

**④ #사례-원리 연결 #수식된 정의 제시 #단어의 의미 살리기**

또 아직 우리나라에 도입되지는 않았지만, (자연스럽게 '스톡옵션'은 우리나라에 도입되어 있다는 생각을 할 수도 있겠죠?) '주식 평가 보상권'의 방식도 있다고 합니다. 단어의 의미 그대로, '주식' 가치가 목표치 이상으로 '평가'될 때 경영자가 그에 따른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권'리라는 식으로 이해할 수 있겠네요. 이 역시 '스톡옵션'과 마찬가지로 '소수의 경영진'이 사익 추구보다는 기업의 주가를 높이는 데 열중하도록 하는 유인이 될 수 있겠습니다.

**\*하이라이트 문장\***

①이러한 문제점을 완화하기 위해 기업이 경영자와 계약을 체결하여 급여 이외의 경제적 이익을 동기로 부여하는 방안이 있다.

앞에서 제시된 문제점을 해결하고 있습니다. 해결책이 제시될 때는, 그 해결책이 문제의 어떤 원인을 제거하고자 하는 것인지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렇게 읽어야 해결책이 훨씬 선명하게 납득될 거예요.

**6문단**

①기업 경영의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된 공적 제도들은 과두제적 경영의 폐해를 방지하는 기능도 한다. ②기업의 주식 가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 제공을 법적으로 의무화한 경영 공시 제도는 경영 투명성을 높이려는 것이다. ③이를 통해 경영진과 주주들 간 정보 격차가 줄어들 수 있다. ④기업의 이사회에 외부 인사를 이사로 참여시키도록 하는 사외 이사 제도는 독단적인 의사 결정을 견제함으로써 폐쇄적 경영으로 인한 정보와 권한의 집중을 억제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

**① #해결책 제시 #카테고리 나누기**

기업 경영의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된 '공적 제도들' 역시 '과두제적 경영'의 폐해를 방지하는 기능을 한다고 합니다. 앞에서 제시된 '스톡옵션'과 '주식 평가 보상권'은 '사적 제도들'이라고 할 수 있는데, 국가에서 직접 마련한 제도들도 있나 보네요. '사적/공적'이라는 카테고리를 나눠 놓은 채로 읽어보도록 합시다.

**②~③ #수식된 정의 제시 #단어의 의미 살리기 #재진술**

먼저 기업의 주식 가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 제공을 법적으로 의무화하는 '경영 공시 제도'입니다. 단어의 의미 그대로, '경영'과 관련된

상상력의 한계가 그 사람의 한계가 된다.

정보를 '공시'할 의무를 설정한 '제도'네요. '과두제적 경영'의 폐해라는 문제점이 나타나는 원인 중 하나는 경영진과 주주들 간의 '정보 불평등'이었습니다. '소수의 경영진'이 정보를 사실상 독점하고 있었으니까요. '경영 공시 제도'라는 '공적 제도'는 이러한 원인을 없애는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④ #수식된 정의 제시 #단어의 의미 살리기**

또한 기업의 이사회에 회사 바깥(외) 사람을 '이사로 참여시키도록 하는 사외 이사 제도'도 있다고 합니다. '과두제적 경영'의 폐해라는 문제점의 또 다른 원인은 '소수의 경영진'이 여러 권한을 독점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권한을 외부 인사에게도 나눔으로써 '과두제적 경영'이 가지고 있는 문제의 원인을 없애 수 있게끔 하는 '공적 제도'가 '사외 이사 제도'인 것이네요. 충분히 납득할 수 있겠죠?

**\*하이라이트 문장\***

①기업 경영의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된 공적 제도들은 과두제적 경영의 폐해를 방지하는 기능도 한다.

'공적 제도들'이라는 말을 보고 카테고리를 나눌 수 있어야 합니다. 앞서 나온 '스톡옵션'과 '주식 평가 보상권'은 '사적 제도들'이라고 할 수 있으므로, 둘을 구분해서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선지	①	②	③	④	⑤
선택률	88%	2%	3%	3%	4%

**4. 밑줄의 내용 전개 방식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① 대상의 개념과 장단점을 제시하고 보완책을 소개한다.

명시적 근거	지문 전체
실전에서 판단 과정	과두제적 경영의 개념과 장단점, 보완책까지. 완벽하네.
해설	'과두제적 경영'이라는 대상의 개념, 장단점, 나아가 '사적/공적' 보완책까지 소개하는 것이 이 지문의 흐름이었습니다.

- ② 유사한 원리들을 분석하고 이를 하나의 이론으로 통합한다.
- ③ 대립하는 유형을 들어 이론적 근거의 변천 과정을 설명한다.
- ④ 가설을 세우고 그에 대해 현실적인 사례를 들어 가며 검토한다.
- ⑤ 문제 상황의 근본 원인을 진단하고 해결책에 대한 상반된 입장을 해설한다.

명시적 근거	-
실전에서 판단 과정	헛소리네.
해설	모두 지문의 내용과 무관한 선지들이죠? 딱히 설명할 내용이 없을 만큼 쉽게 답을 고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선지	①	②	③	④	⑤
선택률	2%	2%	4%	6%	86%

5. **과두제적 경영**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⑤

- 이 지문의 핵심 개념에 대해 묻고 있습니다. '소수, 수직적, 효율성'이라는 카테고리를 생각하면서 풀어보도록 합니다.

- ① 소수의 경영진이 내린 의사 결정이 수직적으로 집행되는 효율성을 추구한다.

명시적 근거	2문단 3번 문장
실전에서의 판단 과정	소수, 수직적, 효율성!
해설	'소수, 수직적, 효율성'이라는 카테고리가 그래도 담겨 있는 선지네요. 가볍게 지워낼 수 있겠죠?

- ② 강한 결속력을 가진 소수의 경영자로 경영진을 이루어 경영권 유지에 강점이 있다.

명시적 근거	3문단 1번~2번 문장
실전에서의 판단 과정	안정적 경영이 가능했지.
해설	강한 결속력을 가진 '소수의 경영진'이 경영권 유지에 대해 '안정적'이라는 것, '과두제적 경영'의 장점으로 납득했던 내용입니다. 지문에서 근거를 찾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미 납득하고 있는 내용을 바탕으로 당연하다는 생각을 하면서 지울 수 있어야 합니다.

- ③ 경영권이 안정되어 중요 기술 개발에 적극적인 투자를 계속 하는 데에 유리하다는 장점이 있다.

명시적 근거	3문단 2번 문장
실전에서의 판단 과정	그랬지.
해설	'소수의 경영진'이 '안정적 경영'을 하면 '과감하고 지속적인 투자'를 할 수 있어 '첨단 핵심 기술의 개발'에도 유리한 면이 있다는 것, 이 역시 '과두제적 경영'의 장점으로 이미 납득한 내용입니다. 빠르게 판단하면서 넘어갈 수 있어야 합니다.

- ④ 경영진이 투자자의 유입을 유도하기 위하여 경영 성과를 부풀릴 위험성이 있어 이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

명시적 근거	4문단 3번 문장, 5문단~6문단 전체
실전에서의 판단 과정	그렇지.
해설	'소수의 경영진'은 사익 추구를 위해 경영 성과를 실제보다 부풀려 투자를 유치한 뒤 주주들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힐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위험성에 대비하기 위한 '사적/공적 제도들'이 마련되어 있었죠?

상상력의 한계가 그 사람의 한계가 된다.

- ⑤ 경영진과 다수 주주 사이의 이해가 일치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기업 가치가 훼손될 위험성이 높아진다.

명시적 근거	4문단 2번 문장
실전에서의 판단 과정	일치하지 않으면 소수의 경영진이 사익을 추구할 수 있지.
해설	이 지문에 제시된 '과두제적 경영'의 폐해는, '소수의 경영진'이 사익을 추구하여 기업 가치가 훼손되고 다수 주주의 이익이 침해된다는 것입니다. 이는 '소수의 경영진'과 다수 주주의 이해가 일치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죠. 만약 둘의 이해가 일치한다면, '소수의 경영진'이 사익을 추구하는 것은 곧 다수 주주의 이해와 맞아떨어지는 것이 됩니다. 다수 주주의 이해는 곧 기업 가치를 높여 주가를 올리는 것이기에, 둘의 이해가 일치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기업 가치가 훼손될 위험성이 낮아지겠죠.  '다수 주주의 이해'에 대해 지문에 제시되어 있지 않은데, '주주'라는 개념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을 바탕으로 생각해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선지	①	②	③	④	⑤
선택률	18%	59%	11%	10%	3%

6. **유평**을 읽고 추론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②

- ① 스톡옵션의 권리를 가진 경영자는 주식 가격이 미리 정해 놓은 것보다 하락하더라도 손실을 입지 않을 수 있다.

명시적 근거	5문단 2번~3번 문장
실전에서의 판단 과정	매수 시점을 유리하게 선택할 수 있지.
해설	'스톡옵션'의 핵심은 이를 가지고 있는 경영자가 원할 때 언제든지 매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식 가격이 미리 정해 놓은 것보다 하락하면, '스톡옵션'을 행사하지 않는 방식으로 손실을 회피할 수 있겠죠. '스톡옵션'의 정의에 대해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는지 묻는 선지입니다.

- ② 스톡옵션은 경영자의 성과 보상에 미래의 주식 가치가 관련된다는 점에서 주식 평가 보상권과 차이가 있다.

명시적 근거	4문단 2번~4번 문장
실전에서의 판단 과정	이건 공통점이지.
해설	'스톡옵션'과 '주식 평가 보상권'은 모두 경영자의 성과 보상에 미래의 주식 가치가 관련되는 것입니다. 차이가 있다면 전자는 주식을 직접 저렴하게 매수할 기회를 주는 것이고, 후자는 주식을 직접 가질 수 있게 하는 것은 아니지만 주가 상승에 따른 보상을 준다는 것이죠. 공통점을 차이점이라고 말하고 있으니 틀린 선지가 되겠습니다. '스톡옵션'

	과 '주식 평가 보상권'이라는 개념의 정의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이로부터 공통점과 차이점을 생각할 수 있는지 묻는 선지였어요.
--	--

③ 경영 공시는 주주가 기업 경영 상황을 파악하여 기업 가치를 평가하는 데 유용한 제도가 될 수 있다.

명시적 근거	6문단 2번~3번 문장
실전에서의 판단 과정	정보 격차를 줄일 수 있지.
해설	'경영 공시 제도'는 기업 경영에 관련된 여러 정보 공시를 의무화하여 주주와 경영자 사이의 정보 격차가 줄어들게끔 하는 제도입니다. 즉, 주주는 '경영 공시'를 기업 경영 상황을 파악하고 기업 가치를 평가하여 주식을 계속 가지고 있을지 매도할지 결정하는 정보로 활용할 수 있는 것이죠. 이러한 점에서 유용한 제도라고 할 수 있었죠?

④ 사외 이사 제도는 기업의 의사 결정에 외부 인사를 참여시켜 경영의 개방성을 높일 수 있는 제도라 평가할 수 있다.

명시적 근거	6문단 4번 문장
실전에서의 판단 과정	폐쇄적 경영의 문제를 해결하는 거지.
해설	'사외 이사 제도'는 기업의 의사 결정에 외부 인사를 참여시켜 독단적인 의사 결정을 견제함으로써 '폐쇄적 경영'으로 인한 정보와 권한의 집중을 억제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곧 '사외 이사 제도'가 경영의 '개방성'을 높일 수 있는 제도라는 말과 같죠?

⑤ 경영 공시 제도와 사외 이사 제도는 기업의 중요 정보에 대한 경영진의 독점을 완화할 수 있다.

명시적 근거	6문단 2번~4번 문장
실전에서의 판단 과정	그렇지.
해설	'경영 공시 제도'와 '사외 이사 제도'는 모두 '소수의 경영진'에게만 폐쇄적으로 다루어지던 기업의 중요 정보를 경영진 외의 사람들에게도 개방하는 데 그 의미가 있습니다. 이처럼 두 제도는 모두 기업의 중요 정보에 대한 경영진의 독점을 완화할 수 있게 하겠죠.

선지	①	②	③	④	⑤
선택률	35%	7%	29%	12%	17%

7.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를 이해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①

- 윗글을 통해 <보기>를 이해하라는 문제입니다. 그렇다면 <보기>를 꼼꼼하게 독해하는 것이 먼저겠죠? <보기>의 내용 중에서 '과두제적 경영'과 관련된 내용에 주목하는 것이 핵심이겠습니다.

X사는 정밀 부품 분야에서 독보적인 기술을 장기간 보유하여 발전시켜 온 기업으로서 시장 점유율도 높다. 원래 X사의 주주들은 모두 함께 경영진이 되어 중요 사항에 대하여 동등한 결정권을 보유하고 있었으나, 기업이 성장하면서 효율성 증진을 위하여 소수의 주주만으로 경영진을 구성하였다.

- X사는 원래 모두 함께 경영진이 되어 중요 사항에 대하여 동등한 결정권을 보유하는 '공동체적 경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기업이 성장하면서 '효율성' 증진을 위하여 '소수의 주주'만으로 경영진을 구성했다고 합니다. '소수, 수직적, 효율성'이라는 키워드로 대변되는 '과두제적 경영'으로의 변화를 꾀한 것이죠?

경영진은 주기적으로 다른 주주들로 교체되어 전체 주주는 기업의 경영 상태를 파악할 수 있으며, 경영 이익의 분배와 같은 주요 사항은 전체 주주가 공동으로 의결한다. X사의 주주 A와 B는 회사의 진로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대화를 나누었다.

- 그런데 경영진이 다른 주주들로 주기적으로 교체된다고 합니다. 교체 과정에서 인수인계가 이루어질 것이기에, 전체 주주는 기업의 경영 상태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과두제적 경영'의 특징 중 하나인 '실질적 권한과 정보의 독점'이 이루어지지 않는 모습이네요. 심지어 주요 사항은 전체 주주가 공동으로 의결한다는 것을 보니, '소수, 수직적, 효율성'이라는 '과두제적 경영'의 요소가 제대로 발현되지 않고 있습니다. X사는 '과두제적 경영'의 요소와 '공동체적 경영'의 요소를 모두 가지고 있는 것이네요.

A : 최근 치열해진 경쟁에 대응하려면, 경영진의 구성원을 변동시키지 않고 경영 결정권도 경영진이 전적으로 행사하도록 하는 게 좋겠습니다.

B : 시장 점유율도 잘 유지되고 있고 우리 주주들의 전문성도 탁월하니, 예전처럼 회사를 운영한다고 하더라도 문제없을 듯합니다.

- 이러한 상황에서 A는 완전한 '과두제적 경영'으로 변화하자는 입장이고, B는 현재 상황을 유지하는 입장입니다. 이렇게 지문의 내용을 <보기>에 잘 입혀놓은 채로 선지를 판단해보도록 합니다.

① X사는 주주들 사이의 평등성이 강하여 과도한 정보 격차나 권한 집중과 같은 폐해를 보이지 않는다.

명시적 근거	<보기>, 4문단 1번~2번 문장
실전에서의 판단 과정	그러네.
해설	미리 생각한 것처럼, X사는 '과두제적 경영'의 요소와 '공동체적 경영'의 요소를 모두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전체 주주가 돌아가며 정보 및 권한을 가질 수 있다는 점에서 '평등성'이 강하다는 것은 일반적인 '과두제적 경영'에서 나타나는 과도한 정보 격차나 권한 집중과 같은 폐해를 보이지 않는다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겠지요? <보기>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했던 생각 그대로 답을 고를 수 있겠네요.
--	---

- ② X사는 현재 경영진이 고정되는 구조로 바뀌었지만 주주가 실적에 대한 이익 분배를 결정할 수 있기 때문에 수직적 경영의 부작용은 나타나지 않는다.

명시적 근거	<보기>, 4문단 1번~2번 문장
실전에서의 판단 과정	아직 경영진이 고정되는 구조로 안 바뀌었는데?
해설	경영진이 고정되는 구조로 바꾸자는 것은 A의 제안일 뿐,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입니다. 여기서 틀린 선지라고 판단할 수 있겠네요. 물론 X사는 모든 주주가 경영 이익, 즉 실적에 대한 분배를 결정할 수 있다는 점에서 '수직적 경영'이 가지고 있는 여러 부작용은 나타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몇몇 주주가 사익을 추구하려고 해도, 어차피 그 이익을 모두의 입맛에 맞게 분배해야 할 것이니까요.

- ③ A는 결속력이 강한 소수의 경영진을 중심으로 운영되는 경영 방식을 현행대로 유지하여야 시장의 점유율을 지킬 수 있다고 보는 입장이다.

명시적 근거	<보기>
실전에서의 판단 과정	현행 유지의 입장이 아니지.
해설	A는 현행 유지의 입장이 아니라, 지금과는 다르게 결속력이 강한 '소수의 경영진'으로 고정시켜 완전한 '과두제적 경영'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보는 입장입니다. A의 주장을 잘 이해했는지 묻는 선지네요.

- ④ B는 수평적인 의사 결정 구조로의 전환을 최소한으로 하여 효율적 경영을 유지해야 한다고 보는 입장이다.

명시적 근거	<보기>
실전에서의 판단 과정	지금 그대로 수평적으로 하자는 거잖아.
해설	X사는 현재 수평적인 의사 결정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B는 이러한 상태를 유지하자고 주장하는 입장이지요? B의 주장을 잘못 이해한 선지기에 틀린 선지입니다.

- ⑤ A와 B는 현재 X사가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안정적인 과두제적 경영을 하고 있다는 전제에서 논의를 한다.

명시적 근거	<보기>, 3문단 1번~2번 문장
실전에서의 판단 과정	둘 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것 같은데?
해설	A는 완전한 '과두제적 경영'으로 변화하자는 입장이고, B는 '과두제적 경영'과 '공동체적 경영'의 요소를 모두 가지고 있는 현재 상태를 유지하자는 입장입니다. 이는 A와 B 모두 X사가 안정적인 '과두

	제적 경영'을 하고 있지 않다는 전제에서 논의를 하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죠? 가볍게 지워낼 수 있겠습니다.
--	--

몰랐던 어휘 정리하기

<p><b>*핵심 point*</b></p> <p>① 화제 check : 독서 지문 독해의 처음이자 끝. 첫 문단에서 잡은 '화제의 틀'을 마지막 문단까지 놓지 않아야 합니다.</p> <p>② 정의 인식 : 단어의 의미를 살린 상태로, 지문에 제시된 정의와 붙여서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정의를 '기억'하는 게 아니라, '납득'해서 본인의 말로 정리할 수 있어야 해요.</p> <p>③ 재진술 인식 : 같은 말이라도 다르게 표현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심지어 아예 똑같은 말이 반복되는 경우도 많아요. 이 '같은 말'에 민감하게 반응하면, '정보량'을 줄이면서 읽을 수가 있습니다.</p> <p>④ 카테고리 나누기 : 정보들의 범주가 나뉠 때, 그들이 서로 다른 카테고리에 속한다는 것을 인지해야 합니다. 이렇게 각 카테고리에 맞춰 정보를 정리하면 훨씬 깔끔하게 정리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 주세요.</p> <p>⑤ 사례-원리 연결 : 모든 사례는 어떠한 추상적인 원리를 구체화하는 역할을 합니다. 둘을 연결지으며 확실하게 이해하고 가는 태도가 중요합니다.</p> <p>⑥ 문제해결형 지문 : 결국, 문제의 원인을 제거하는 것이 해결책입니다. '원인'을 생각하고, 그 원인을 제거하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미리 생각하면 해결책을 훨씬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p>
--

<p><b>*지문 내용 총정리*</b></p> <p>핵심 개념의 정의를 바탕으로 재진술되는 정보를 납득하고, 카테고리를 나누면서 정보를 체계적으로 이해하는 과정을 요구한 지문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최대한 많은 정보를 당연한 말로 '납득'하는 것입니다. 이 태도를 통해 문제를 빠르고 정확하게 풀어냈는지 점검해보도록 합시다.</p>
--

**생각의 전개 <과학·기술 제재의 지문 읽기>**

2025.06 [8~11] 과학 '플라스틱의 형성 원리' ☆☆☆

**1문단**

①식품 포장재, 세제 용기 등으로 사용되는 플라스틱은 생활에서 흔히 접할 수 있다. ②플라스틱은 '성형할 수 있는, 거푸집으로 조형이 가능한'이라는 의미의 '플라스티코스'라는 그리스어에서 온 말로, 열과 압력으로 성형할 수 있는 고분자 화합물을 이른다.

**①~② #정의 제시 #화제 제시**

우리 생활에서 흔히 접할 수 있는 '플라스틱'에 대한 글입니다. '플라스틱'은 그 어원처럼 열과 압력으로 성형할 수 있는 '고분자 화합물'로 정의된다고 합니다. 중요 개념의 정의이니 확실하게 체크할 필요가 있겠죠? 나아가 이 지문은 '플라스틱'과 관련된 이야기를 할 것이라는 생각을 하면서 화제를 구체화할 준비도 해봅시다.

**2문단**

①플라스틱은 단위체인 작은 분자가 수없이 반복 연결되는 중합을 통해 만들어진 거대 분자로 이루어져 있다. ②단위체들은 공유 결합으로 연결되는데, 분자를 구성하는 원자들이 서로 전자를 공유하여 안정한 상태가 되는 결합을 공유 결합이라 한다. ③두 원자가 각각 전자를 하나씩 내어놓아 그 두 개의 전자를 한 쌍으로 공유하면 단일 결합이라 하고, 두 쌍을 공유하면 이중 결합이라 한다. ④공유 전자쌍이 많을수록 원자 간의 결합력은 강하다. ⑤대부분의 원자는 가장 바깥 전자 껍질의 전자 수가 8개가 될 때 안정해진다. ⑥탄소 원자는 가장 바깥 전자 껍질에 4개의 전자를 갖고 있어, 다른 원자들과 전자를 공유하여 안정해질 수 있으며 다양한 형태의 공유 결합이 가능하여 거대한 분자의 골격을 이룰 수 있다.

**① #수식된 정의 제시**

'플라스틱'은 '단위체'라고 할 수 있는 작은 분자가 수없이 반복 연결되는 '중합'을 통해 만들어진 거대 분자로 이루어져 있다고 합니다. '플라스틱'은 곧 '거대 분자'라고 할 수 있는데, 이 '거대 분자'는 작은 분자가 수없이 반복 연결된 형태로 존재하는 것이죠. 이러한 모습을 충분히 상상할 수 있겠죠?

**②~④ #수식된 정의 제시 #단어의 의미 살리기 #재진술**

'단위체'들이 '플라스틱'과 같은 거대 분자가 되기 위해서는 '공유 결합'으로 연결되어야 한다고 합니다. 단어의 의미 그대로, 분자를 구성하는 원자들이 서로 전자를 '공유'하여 '결합'하는 것이 '공유 결합'이네요. 나아가 원자들이 서로 전자를 공유한 상태를 '안정한 상태'로 정의한다는 것도 체크할 수 있겠죠?

이때 두 원자가 각각 전자를 하나씩 내어놓아 그 두 개의 전자를 '한 쌍'으로 공유하면 '단일 결합', 두 쌍을 공유하면 '이중 결합'이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단일'과 '이중'이라는 단어의 의미를 살리면 이 역시 충분히 납득할 수 있겠죠? 공유 전자쌍이 많을수록 원자 간의 결합력은 강하다는 것 역시 당연히 납득할 수 있습니다. 훨씬 더 '안정한 상태'로 결합되어 있으니, 그 결합력 역시 강하다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상상력의 한계가 그 사람의 한계가 된다.

**⑤ #수식된 정의 제시 #재진술 #단어의 의미 살리기**

대부분의 원자는 '가장 바깥 전자 껍질'의 전자 수가 8개가 될 때 '안정'해진다고 합니다. 일단 '가장 바깥 전자 껍질'이라는 개념이 정확히 무엇인지는 몰라도, '안정'이라는 '진짜로' 같은 말이 반복되었다는 인식하고 생각해봐야 합니다. 앞에서는 '안정' 상태를 '원자들이 서로 전자를 공유하는 것'으로 정의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가장 바깥 전자 껍질의 전자 수가 8개가 될 때'로 정의하고 있네요. 그렇다면 결국 원자들이 서로 전자를 공유하여, 한 원자의 '가장 바깥 전자 껍질'의 전자 수가 8개가 될 때 비로소 '안정한 상태'라는 표현을 쓸 수 있다는 식으로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단어의 의미 그대로, '가장 바깥'에 있는 '전자 껍질'에 전자가 8개가 되게끔 다른 원자의 전자를 공유한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 '가장 바깥 전자 껍질'에 6개의 전자를 가지고 있는 원자의 경우, 다른 원자와의 '이중 결합'을 통해 2개의 원자를 '가장 바깥 전자 껍질'에 추가하여 8개를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최대한 납득하면서 읽을 수 있어야 해요.

**⑥ #사례-원리 연결 #재진술 #화제의 흐름**

이를 설명하기 위해서인지, '탄소 원자'라는 사례가 제시되고 있습니다. '탄소 원자'는 '가장 바깥 전자 껍질'에 4개의 전자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다른 원자들과 전자를 공유하여 '가장 바깥 전자 껍질'에 4개의 전자를 추가하면 총 8개의 전자를 가질 수 있어 '안정한 상태'가 될 수 있겠죠. 또한 4개의 전자를 추가하려면, 다양한 형태의 '공유 결합'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냥 '사중 결합'을 해도 되겠지만, '단일 결합'과 '이중 결합'을 섞는 형태도 가능하겠죠.

이렇게 '탄소 원자'를 통해 '안정한 상태'라는 개념에 대해 이해하는 것은 기본이고, '거대한 분자'라는 '진짜로' 같은 말이 반복되었다는 것에 주목할 수 있어야 합니다. '거대한 분자'는 이 지문의 화제에 해당하는 '플라스틱'을 의미하니까요. 즉, '탄소 원자'는 '공유 결합'을 통해 '플라스틱'이라는 '거대한 분자'의 골격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결국 2문단은 이 한마디를 위해 존재하는 것이죠. 이렇게 '같은 말'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면서 정보량이 줄어드는 느낌을 받으셔야 합니다.

**\*하이라이트 문장\***

⑤대부분의 원자는 가장 바깥 전자 껍질의 전자 수가 8개가 될 때 안정해진다.

'안정'이라는 '진짜로' 같은 말에 주목하면서, '안정한 상태'라는 중요한 개념에 대해 완벽하게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렇게 은근슬쩍 정의되는 중요 개념의 정의를 이해하는 것이 지문 독해 전반에 있어 큰 영향을 끼친다는 것을 잊지 마세요.

**3문단**

①플라스틱의 한 종류인 폴리에틸렌은 에틸렌 분자들이 서로 연결되는 중합 과정을 거쳐 만들어진다. ②에틸렌은 두 개의 탄소 원자와 네 개의 수소 원자로 이루어지는데, 두 개의 탄소 원자가 서로 이중 결합을 하고 각각의 탄소 원자는 두 개의 수소 원자와 단일 결합을 한다. <③탄소 원자 간의 이중 결합에서는 한 결합이 다른 하나보다 끊어지기 쉽다.>

**①~③ #정의 제시 #재진술**

'플라스틱' 중에서도 '폴리에틸렌'에 대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는 '에틸렌' 분자들이 서로 연결되는 '중합' 과정을 거쳐 만들어진다고 해요.

‘에틸렌 분자’가 ‘단위체’이고, ‘폴리에틸렌’은 ‘거대한 분자’일 것이라는 점을 생각하면서 읽을 수 있겠죠? 이 과정에서 원자들이 ‘공유 결합’을 통해 ‘안정한 상태’가 되는 모습도 나타날 것이구요. 과학 · 기술 제재의 지문에서는 이렇게 초반부 정보를 확실하게 납득하고 계속해서 끌고 오며 활용하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아무튼, ‘에틸렌’은 두 개의 ‘탄소 원자’와 네 개의 ‘수소 원자’로 이루어져 있다고 합니다. ‘탄소 원자’는 ‘가장 바깥 전자 껍질’의 전자 수가 4개로 불안정한 상태의 원자입니다. 따라서 ‘공유 결합’을 통해 총 8개의 전자 수를 만들 필요가 있습니다. 그 방법은 두 개의 ‘탄소 원자’가 서로 이중 결합을 하여 2개의 전자를 가져오고, 또 각각의 ‘탄소 원자’가 두 개의 ‘수소 원자’와 ‘단일 결합’을 하여 2개의 전자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탄소 원자’의 ‘가장 바깥 전자 껍질’의 전자 수가 4개임을 다시 떠올리고, 결국 이 ‘탄소 원자’가 ‘안정한 상태’가 되는 것이 ‘에틸렌 분자’임을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에틸렌 분자’가 ‘중합’ 과정을 거치면 ‘폴리에틸렌’이라는 ‘거대한 분자’가 되는 것이구요.

나아가 ‘탄소 원자’ 간의 ‘이중 결합’에서는 한 결합이 다른 하나보다 끊어지기 쉽다고 합니다. 납득이 불가능한 정보이니, 따로 체크해놓도록 합니다.

**\*하이라이트 문장\***

②에틸렌은 두 개의 탄소 원자와 네 개의 수소 원자로 이루어지는데, 두 개의 탄소 원자가 서로 이중 결합을 하고 각각의 탄소 원자는 두 개의 수소 원자와 단일 결합을 한다.

새로운 정보로 느껴지면 안 됩니다. 이 문장에서는 보이지 않는 ‘안정한 상태’라는 단어가 떠올라야 합니다. 결국 과학 · 기술 지문의 핵심은 초반부 정보의 반복임을 잊지 마세요.

**4문단**

①에틸렌의 중합에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중에 하나는 **과산화물 개시제**를 사용하는 것이다. ②**열을 흡수한 과산화물 개시제는 가장 바깥 껍질에 7개의 전자가 있는 불안정한 상태의 원자를 가진 분자로 분해된다.** ③이 불안정한 원자는 안정해지기 위해 에틸렌이 가진 탄소의 이중 결합 중 더 약한 결합을 끊어 버리면서 에틸렌의 한쪽 탄소 원자와 전자를 공유하며 단일 결합한다. ④그러면 다른 쪽 탄소 원자는 공유되지 못한, 홀로 남은 전자를 갖게 된다. ⑤이 불안정한 탄소 원자는 **같은 방식으로 다른 에틸렌 분자와 반응을 하게 되고, 이와 같은 반응이 이어지며 불안정해지는 탄소 원자가 계속 생성된다.** ⑥에틸렌 분자들이 결합하여 더해지면 이것들은 **사슬 형태**를 이루며, 이 사슬은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사슬 끝에는 불안정한 탄소 원자가 존재하게 된다. ⑦**성장하는 두 사슬의 끝이 서로 만나 결합하여 안정한 상태가 되면 반복적인 반응이 멈추게 된다.** ⑧이 중합 과정을 거쳐 에틸렌 분자들은 **폴리에틸렌**이라는 **고분자 화합물**이 된다.

**①~③ #과정 제시 #재진술**

이렇게 ‘에틸렌’을 ‘중합’시켜 ‘폴리에틸렌’이라는 ‘플라스틱’으로 만드는 방법 중 하나는 ‘과산화물 개시제’를 사용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열을 흡수한 ‘과산화물 개시제’는 ‘가장 바깥 껍질’에 7개의 전자가 있는 불안정한 상태의 원자를 가진 분자로 분해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어딘가

상상력의 한계가 그 사람의 한계가 된다.

에서 1개의 전자를 가져와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에틸렌’이 가진 ‘탄소의 이중 결합’ 중 더 약한 결합을 끊어 버리면서 ‘에틸렌’의 한쪽 ‘탄소 원자’와 전자를 공유하여 ‘단일 결합’한다고 합니다. 바로 앞에서 ‘탄소의 이중 결합’ 중 한 결합이 다른 하나보다 끊어지기 쉽다고 했는데, 이 결합을 끊어 전자를 가져와 ‘단일 결합’함으로써 ‘안정한 상태’가 되는 것이죠. 충분히 납득할 수 있겠죠?

**④~⑥ #과정 제시 #재진술**

이렇게 ‘과산화물 개시제’로부터 나온 원자는 ‘안정한 상태’가 되었지만, ‘이중 결합’이 끊긴 하나의 ‘탄소 원자’는 공유되지 못하고 홀로 남은 전자를 갖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탄소 원자’는 ‘가장 바깥 전자 껍질’에 전자 수가 7개밖에 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마치 ‘과산화물 개시제’로부터 나온 원자와 같은 상태가 된 것이죠. 따라서 이 ‘탄소 원자’는 또 다른 ‘에틸렌’이 가진 ‘탄소의 이중 결합’ 중 더 약한 결합을 끊어 버리는 ‘같은 방식’으로 다른 ‘에틸렌 분자’와 반응을 하게 됩니다. 이러면 다시 그 ‘탄소 원자’는 ‘안정한 상태’가 되겠고, 다른 ‘탄소 원자’가 공유되지 못해 홀로 남은 전자를 갖는 불안정한 상태가 되겠죠. 이와 같은 반응이 이어지면, ‘과산화물 개시제’로부터 나온 원자에 연결된 ‘탄소 원자’, 그리고 거기에 연결된 ‘탄소 원자’, 또 연결된 ‘탄소 원자’…… 이런 식으로 ‘중합된’ ‘에틸렌 분자’가 만들어지게 되면서 ‘사슬 형태’를 이루게 되는 것이죠. 이 사슬은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사슬의 끝에는 불안정한 ‘탄소 원자’가 계속해서 존재하게 될 것입니다. 불안정한 ‘탄소 원자’가 계속해서 ‘안정한 상태’이던 ‘탄소 원자’의 전자를 빼앗아 불안정하게 만들 것이니까요. 조금 어렵기는 하지만, ‘안정한 상태’라는 개념의 정의를 활용하여 차분하게 읽으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⑦ #과정 제시 #재진술**

그런데 이러한 사슬이 두 개인가 봅시다. 참 불친절하긴 하지만, ‘성장하는 두 사슬’이라는 표현을 보면 두 개의 사슬이 존재한다는 것을 생각할 수 있겠죠? 어쨌든 ‘성장하는 두 사슬’의 끝에는 ‘가장 바깥 전자 껍질’의 전자 수가 7개인 ‘탄소 원자’가 있을 것입니다. 이들이 서로 만나 결합하여 ‘단일 결합’하면, 각각 ‘가장 바깥 전자 껍질’의 전자 수가 8개인 ‘안정한 상태’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되면 더 이상 ‘안정한 상태’가 되기 위해 결합하려는 원자가 없게 되므로, 반복적인 반응이 멈추게 되겠죠. 어렵긴 하지만, 철저하게 지문 내용만으로 생각할 수 있는 부분들이니 스스로 뚫어보시기 바랍니다. 핵심은 ‘안정한 상태’라는 개념의 정의를 끌고 오는 것이예요.

**⑧ #화제의 흐름**

우리가 읽고 있던 이 엄청난 정보들은 모두 ‘폴리에틸렌’이라는 ‘고분자 (=거대한 분자) 화합물’, 즉 ‘플라스틱’을 만드는 방법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에틸렌 분자’들이 이렇게 사슬이 결합하는 ‘중합’ 과정을 거치면, ‘폴리에틸렌’이라는 ‘플라스틱’이 되는 것이죠. 화제의 흐름이 명확하게 잡히는 느낌이 드시죠?

**\*하이라이트 문장\***

⑤이 불안정한 탄소 원자는 같은 방식으로 다른 에틸렌 분자와 반응을 하게 되고, 이와 같은 반응이 이어지며 불안정해지는 탄소 원자가 계속 생성된다.

여기서 말하는 ‘같은 방식’이 의미하는 바를 바탕으로, ‘에틸렌 분자’의 ‘중합’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완벽하게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선 초반부 정보를 처리하면서 확실하게 체크했던 ‘안정한 상태’라는 개념의 정의를 끌고 오는 게 핵심이죠? 이렇게 초반부 정보를 끌고

오는 독해 태도에 익숙해지시기 바랍니다. 대부분의 과학·기술 지문을 뚫어내는 핵심 포인트이니깐요.

**5문단**

①플라스틱을 이루는 거대한 분자들은 길이가 길다. ②그래서 사슬들이 일정한 방향으로 나란히 배열되어 있는 결정 영역은, 분자들 전체에서 기대할 수는 없지만 부분적으로 있을 수는 있다. ③플라스틱에서 결정 영역이 차지하는 부분의 비율은 여러 조건에 따라 조절이 가능하고 물성에 영향을 미친다. <④결정 영역이 많아질수록 플라스틱은 유연성이 낮아 충격에 약하고 가공성이 떨어지며 점점 불투명해지지만, 밀도가 높아져 단단해지고 화학 물질에 대한 민감성이 감소하며 열에 의해 잘 변형되지 않는다.> ⑤이런 성질을 활용하여 필요에 따라 다양한 종류의 플라스틱을 만들 수 있다.

**①~③ #수식된 정의 제시 #재진술**

‘플라스틱’은 ‘단위체’들이 ‘중합’하여 만들어진 ‘거대한 분자’입니다. 따라서 그 길이가 길겠죠? 이에 사슬들이 ‘일정한 방향’으로 ‘나란히’ 배열되어 있는, 즉 질서정연하게 배열되어 있는 ‘결정 영역’은 분자들 전체에서 기대할 수는 없다고 합니다. 길이가 워낙에 길다 보니 ‘결정 영역’이 아닌 경우, 즉 질서정연하지 않은 경우가 훨씬 많을 수밖에 없겠죠. 물론 부분적으로 있을 수는 있지만요. 그래서 이 ‘결정 영역’의 비율을 조절하면 물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합니다. 당연히 납득할 수 있겠죠? ‘플라스틱’의 사슬 배열이 질서정연한 정도에 따라 당연히 그 성질이 다를 것이니까요.

**④~⑥ #재진술**

‘결정 영역’이 많아질수록, ‘플라스틱’은 유연성이 낮아 충격에 약하고 가공성이 떨어지며 점점 불투명해진다고 합니다. 최대한 납득하려고 하셔야 합니다. ‘결정 영역’이 많다는 것은 ‘플라스틱’의 분자 배열이 질서정연하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일정한 배열로 이루어져 있으면 그 배열이 조금이라도 흐트러지는 순간 손상되기 쉬울 것이고, 이에 유연성이 낮아 충격에 약하고 가공성이 떨어진다는 특징을 가지는 것이겠네요. 나아가 일정한 배열로 뽁뽁하게 들어설 것이니 불투명해질 것이구요. 냉장고에 음료수를 질서정연하게 놓으면 그렇지 않을 때보다 훨씬 더 많이 넣을 수 있고, 이 경우 냉장고 안의 여백이 거의 보이지 않는다는 것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특징은 밀도가 높아져 단단해지고 화학 물질에 대한 민감성이 감소하여 열에 의해 잘 변형되지 않는다는 장점도 있을 것입니다. 이 역시 충분히 납득할 수 있겠죠? 이런 성질을 활용하여, 필요에 따라 다양한 종류의 ‘플라스틱’을 만들 수 있겠네요. 단단한 ‘플라스틱’이 필요하면 ‘결정 영역’의 비율을 높이고, 쉽게 변형되어야 하는 ‘플라스틱’이 필요하면 ‘결정 영역’의 비율을 낮추는 식으로 말이예요.

**\*하이라이트 문장\***

④결정 영역이 많아질수록 플라스틱은 유연성이 낮아 충격에 약하고 가공성이 떨어지며 점점 불투명해지지만, 밀도가 높아져 단단해지고 화학 물질에 대한 민감성이 감소하며 열에 의해 잘 변형되지 않는다.

이런 문장을 그냥 넘어가는 학생과, 최대한 납득하고 넘어가는 학생들을 비교했을 때, ‘독해 시간’은 후자가 조금 더 길겠지만 ‘문제풀이 시간’

상상력의 한계가 그 사람의 한계가 된다.

은 후자가 압도적으로 짧을 것입니다. 납득에 실패한다면 어쩔 수 없겠지만, 일단 최대한 납득해 보려고 시도하는 태도가 중요합니다. 시험장에서 이런 문장을 납득하는 순간 시간을 크게 아낄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마세요.

선지	①	②	③	④	⑤
선택률	3%	4%	7%	70%	16%

**8. 윗글에서 알 수 있는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④**

① 단위체들은 중합을 거쳐 거대 분자를 이룰 수 있다.

명시적 근거	2문단 1번 문장
실전에서의 판단 과정	그렇게 플라스틱이 되지.
해설	‘단위체’인 작은 분자가 수없이 반복 연결되는 ‘중합’을 통해 만들어진 거대 분자가 곧 이 지문의 주인공인 ‘플라스틱’이었죠?

② 에틸렌 분자에는 단일 결합과 이중 결합이 모두 존재한다.

명시적 근거	3문단 2번 문장
실전에서의 판단 과정	그랬지.
해설	‘에틸렌 분자’는 두 개의 ‘탄소 원자’가 서로 ‘이중 결합’을 하고 각각의 ‘탄소 원자’는 두 개의 ‘수소 원자’와 ‘단일 결합’을 하여 ‘안정한 상태’가 된 모습으로 존재합니다. ‘단일 결합’과 ‘이중 결합’이 모두 존재하는 모습이죠?

③ 플라스틱이라는 명칭의 유래는 열과 압력으로 성형이 되는 성질과 관련이 있다.

명시적 근거	1문단 2번 문장
실전에서의 판단 과정	플라스티코스!
해설	‘플라스틱’은 열과 압력으로 성형할 수 있는 고분자 화합물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플라스틱’은 ‘성형할 수 있는, 거푸집으로 조형이 가능한’이라는 의미의 ‘플라스티코스’라는 말에서 유래된 명칭이에요. ‘플라스틱’이 정의를 고려할 때, 그 명칭의 유래는 열과 압력으로 성형이 되는 성질과 관련이 있다고 할 수 있겠죠?

④ 불안정한 원자를 가진 에틸렌은 과산화물을 개시제로 쓰면 분해되면서 안정해진다.

명시적 근거	4문단 3번~5번 문장
실전에서의 판단 과정	오히려 불안정해지지.
해설	일단 ‘에틸렌’은 애초에 ‘안정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열을 흡수한 ‘과산화물 개시제’에서 분해된 분자

	에 의해 '에틸렌 분자' 속 '탄소 원자'의 '이중 결합' 중 하나가 끊겨 불안정한 상태가 되죠? 이 지문의 핵심 정보였던 '에틸렌의 중합 과정'을 거꾸로 이해하고 있기에 틀린 선지가 되겠습니다. 가볍게 답으로 고를 수 있겠네요.
--	--

⑤ 탄소와 탄소 사이의 이중 결합 중 하나의 결합 세기는 나머지 하나의 결합 세기보다 크다.

명시적 근거	3문단 3번 문장
실전에서의 판단 과정	그래서 약한 걸 끊는 거였지.
해설	'탄소 원자' 간의 '이중 결합'에서는 한 결합이 다른 하나보다 끊어지기 쉽습니다. 이 중 더 약한 '이중 결합'을 끊어내는 것이 '에틸렌의 중합 과정'이었죠? 이 과정에서 핵심이 되는 정보였기 때문에 충분히 기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선지	①	②	③	④	⑤
선택률	21%	37%	14%	17%	11%

9. ㉠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이 중합 과정
----------

- 이 지문의 핵심 정보인 '에틸렌의 중합 과정'에 대해 묻고 있습니다. 완벽하게 이해하고 있으니 가볍게 해결해봅시다.

① 성장 중의 사슬은 그 양쪽 끝부분에서 불안정한 탄소 원자가 생성된다.

명시적 근거	4문단 2번~7번 문장
실전에서의 판단 과정	한쪽에만 있지. 다른 한쪽은 과산화물 개시제로부터 나온 원자이고.
해설	㉠ 과정의 사슬은 '과산화물 개시제'로부터 나온 원자가 '에틸렌'이 가진 '탄소 원자'의 '이중 결합' 중 더 약한 결합을 끊어 버리면서 만들어지기 시작합니다. 이에 사슬의 한쪽 끝은 '과산화물 개시제'로부터 나온 원자, 다른 한쪽 끝은 '불안정한 탄소 원자'로 이루어지게 되죠. 즉, 성장 중의 사슬의 '양쪽 끝부분'에서 '불안정한 탄소 원자'가 생성되는 것이 아니라 '한쪽 끝부분'이라고 해야 옳기 때문에 틀린 선지입니다. 두 사슬의 이 '한쪽 끝부분'이 붙어 '안정한 상태'가 되면 사슬의 성장이 끝나는 것이었죠? ㉠에 대해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다면 가볍게 답으로 고를 수 있었을 것입니다.

② 사슬의 중간에 두 탄소 원자가 서로 전자를 하나씩 내어놓아 공유하는 결합이 존재한다.

명시적 근거	4문단 2번~7번 문장
실전에서의 판단 과정	불안정한 탄소 원자가 계속 이중 결합을 끊어서 전자 하나씩 뺏어오지.

해설	1번 선지에서든 생각했듯이, 사슬의 끝부분에는 '불안정한 탄소 원자'가 존재합니다. 이는 '과산화물 개시제'로부터 나온 원자에게 전자를 하나 빼앗겨 '가장 바깥 전자 껍질'의 전자 수가 7개밖에 없는 '탄소 원자'였죠? 이 '탄소 원자'는 '안정한 상태'가 되기 위해 또 다른 '에틸렌'이 가진 '탄소 원자'의 '이중 결합' 중 하나를 끊어 버리는데, 이는 이렇게 끊긴 '탄소 원자'의 전자 중 하나를 가져와 '가장 바깥 전자 껍질'의 전자 수를 8개로 만들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전자 '하나'를 가져와 공유하는 것을 '단일 결합'이라고 부르죠? 그렇다면 사슬의 중간에는 두 '탄소 원자'가 서로 전자를 하나씩 내어놓아 공유하는 결합, 즉 '단일 결합'이 존재할 것입니다. ㉠을 완벽히 이해해야 정확하게 해결할 수 있을 거예요. 그렇게 했기를 바랍니다.
----	--

③ 상태가 불안정한 원자를 지닌 분자의 생성이 연속적인 사슬 성장 반응이 일어나는 계기가 된다.

명시적 근거	4문단 2번~5번 문장
실전에서의 판단 과정	그래야 계속 안정해지려고 연속적인 사슬 성장 반응을 일으키지.
해설	'상태가 불안정한 (탄소) 원자'를 지닌 (에틸렌) 분자가 계속해서 만들어지는 것이 연속적인 사슬 성장 반응이 일어나는 계기가 됩니다. '안정한 상태'가 되기 위해 또 다른 '안정한 상태'의 '탄소 원자'를 가진 '에틸렌 분자'를 건드리고, 이 과정이 반복되는 것이니까요.

④ 공유되지 못하고 홀로 남은 전자를 가진 탄소 원자는 사슬의 성장 과정이 종결되기 전까지 계속 발생한다.

명시적 근거	4문단 2번~7번 문장
실전에서의 판단 과정	그렇지. 계속 하나씩 모자라게 되니까.
해설	공유되지 못하고 홀로 남은 전자를 가진, 즉 불안정한 상태의 '탄소 원자'는 사슬의 끝에서 계속 발생합니다. 그러다가 또 다른 사슬의 끝과 만나 '단일 결합'하면 사슬의 성장 과정이 종결되는 것이죠.

⑤ 에틸렌 분자를 구성하는 탄소 원자들 사이의 이중 결합이 단일 결합으로 되면서 사슬의 성장 과정을 이어 간다.

명시적 근거	4문단 2번~7번 문장
실전에서의 판단 과정	원래 두 쌍을 공유했는데 한 쌍이 사라진 거지.
해설	'에틸렌 분자'를 구성하는 '탄소 원자'들은 원래 '이중 결합'을 하고 있습니다. 즉, 두 쌍의 전자를 공유하고 있죠. 그런데 '과산화물 개시제'로부터 나온 원자, 혹은 불안정해진 '탄소 원자'에 의해 이 '이중

결합' 중 더 약한 결합이 끊기게 됩니다. 두 쌍의 결합 중 하나가 끊겼다는 것은, 한 쌍의 결합만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즉, '이중 결합'이 '단일 결합'으로 된 것이죠. 이것이 이어지는 것이 사슬의 성장 과정이었죠?

선지	①	②	③	④	⑤
선택률	9%	8%	62%	12%	9%

10.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의 ㉔와 ㉕를 이해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㉓

폴리에틸렌은 높은 압력과 온도에서 중합되어 사슬이 여기저기 가지를 친 구조로 만들어지기도 한다. ㉔ 가지를 친 구조의 사슬들은 조밀하게 배열되기 힘들다. 한편 특수한 촉매를 사용하여 저온에서 중합되면 탄소 원자들이 이루는 사슬이 한 줄로 쭉 이어진 직선형 구조로 만들어지기도 한다. 이 ㉕ 직선형 구조의 사슬들은 한 방향으로 서로 나란히 조밀하게 배열될 수 있다.

- ㉔는 가지를 친 구조의 사슬들로, 조밀하게 배열되기 힘든 것입니다. 즉, '결정 영역'이 차지하는 비율이 낮은 '폴리에틸렌'인 것이죠. 반면 ㉕는 한 방향으로 서로 나란히 조밀하게, 즉 질서정연하게 사슬이 배열되어 있습니다. '결정 영역'이 차지하는 비율이 높은 '폴리에틸렌'이죠? 전자에 비해 후자가 더 유연성이 낮아 충격에 약하고 가공성이 떨어지며 불투명하지만, 밀도가 높아 단단하고 화학 물질에 대한 민감성이 낮아 열에 의해 잘 변형되지 않을 것입니다. 이 모든 특징을 미리 납득한 상태죠? 가볍게 답을 골라봅시다.

- ① 충격에 잘 깨지지 않도록 유연하게 하려면 ㉔보다 ㉕로 이루어진 소재가 적합하겠군.
- ② 포장된 물품이 잘 보이게 하려면 포장재로는 ㉔보다 ㉕로 이루어진 소재가 적합하겠군.
- ③ 보관 용기에서 화학 물질이 닿는 부분에는 ㉔보다 ㉕로 이루어진 소재를 쓰는 것이 좋겠군.
- ④ ㉕보다 ㉔로 이루어진 소재의 밀도가 더 높겠군.
- ⑤ 열에 잘 견디게 하려면 ㉕보다 ㉔로 이루어진 소재가 적합하겠군.

명시적 근거	<보기>, 5문단 2번~4번 문장
실전에서의 판단 과정	3번 빼고 다 반대로 써놨네.
해설	유연하게 하거나 포장된 물품이 잘 보이게끔 투명하게 하려면 ㉕보다는 ㉔가 적합할 것이고, ㉔보다 ㉕로 이루어진 소재의 밀도가 더 높을 것이며, 열에 잘 견디게 하려면 ㉔보다 ㉕로 이루어진 소재가 적합할 것입니다. 모두 <보기>를 정리하면서 미리 생각한 내용들이죠?  한편 화학 물질이 닿는 부분에는 이에 대한 민감성이 더 낮은 ㉕가 ㉔보다 나을 것입니다. 3번 선지를 제외하곤 모두 반대로 써 놓은 선지들이네요. 가볍게 답을 고를 수 있겠죠?

선지	①	②	③	④	⑤
선택률	2%	23%	71%	2%	2%

11. ㉔와 문맥상 의미가 가장 가까운 것은? ㉓

- ① 요즘 신도시는 아파트가 대규모로 서로 접해 있다.
- ② 그는 자신의 수상 소식을 오늘에야 접하게 되었다.
- ③ 나는 교과서에서 접한 시를 모두 외웠다.
- ④ 우리나라는 삼면이 바다에 접해 있다.
- ⑤ 우리 집은 공원을 접하고 있다.

물랐던 어휘 정리하기

**\*핵심 point\***

- ① 화제 check : 독서 지문 독해의 처음이자 끝. 첫 문단에서 잡은 '화제의 틀'을 마지막 문단까지 놓지 않아야 합니다.
- ② 정의 인식 : 단어의 의미를 살린 상태로, 지문에 제시된 정의와 붙여서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정의를 '기억'하는 게 아니라, '납득'해서 본인의 말로 정리할 수 있어야 해요.
- ③ 재진술 인식 : 같은 말이라도 다르게 표현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심지어 아예 똑같은 말이 반복되는 경우도 많아요. 이 '같은 말'에 민감하게 반응하면, '정보량'을 줄이면서 읽을 수가 있습니다.
- ④ 초반 정보 건지기 : 과학·기술 지문에서는 초반부에 정보를 잔뜩 던지고, 후반부에는 그 정보를 활용해서 어떤 논의를 이어가는 경우가 많아요. 초반부의 정보만 잘 건디면 뒤에서 편해집니다.

**\*지문 내용 총정리\***

화학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이 부족한 학생들은 상황을 상상하는 것이 상당히 어려웠을 불친절한 지문입니다. 하지만 결국 초반부에 제시된 '안정한 상태'라는 개념의 정의를 통해 쭉 이해할 수 있게끔 써 놓은 전형적인 과학·기술 지문이라는 것도 부정하기 어렵죠? 철저하게 지문 내용만으로 이해할 수 있으니, 스스로의 힘으로 완벽하게 이해하는 것을 목표로 삼아보도록 합시다. 평가원은 앞으로도 과학·기술 제재의 지문에서 이 정도의 이해를 요구할 것이니까요.

**생각의 전개 <추상적인 원리, 구체적인 사례>**  
2025.06 [12~17] 인문 '도덕 문장의 진리 적합성'  
☆☆☆☆☆

**(가) 1문단**

① 전통적인 윤리학의 주요 주제는 '선', '올바름'과 같은 도덕 용어에 대한 해명을 바탕으로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판정하는 객관적 근거를 찾는 것이다. ② 그러나 윤리학은 오랫동안 그에 대한 만족스러운 답을 내놓지 못했다. ③ 이러한 상황에서 에이어는 도덕적으로 옳고 그름에 관한 문장인 도덕 문장이 진리 적합성, 즉 참 또는 거짓일 수 있다는 성질을 갖지 않는다는 주장을 펼쳤다.

**① #주장 제시**

'전통적인 윤리학'의 주요 주제를 설명하면서 시작하고 있습니다. '전통적인 윤리학'에서는 '선', '올바름'과 같은 '도덕 용어'를 해명하여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판정하는 객관적 근거를 찾는 것에 관심을 두었다고 합니다. 즉, '선'과 '올바름'과 같은 '도덕 용어'의 의미를 정확히 하여 누군가에 대한 도덕적 평가를 객관적으로 '옳다/그르다'로 평가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전통적인 윤리학'의 목표였던 것이죠.

**②~③ #주장 제시 #정의 제시 #단어의 의미 살리기 #화제 제시**

하지만 윤리학은 오랫동안 만족스러운 답을 내놓지 못했습니다. 이때 '에이어'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에이어'라는 사람의 주장이 처음으로 제시되고 있는데, 앞으로 '에이어'는 이 한마디만 반복해서 할 것이니 확실하게 체크하도록 합니다.

'에이어'는 '도덕'적으로 옳고 그름에 관한 '문장'인 '도덕 문장'이 '진리 적합성'을 갖지 않는다는 주장을 펼쳤습니다. '진리 적합성'은 단어의 의미 그대로 '참'인지 아닌지, 즉 '진리'에 부합하는지 아닌지를 따지기에 '적합'한 '성'질 정도로 이해할 수 있겠지요? '도덕 문장'은 참 또는 거짓을 따질 수 없기에, '전통적인 윤리학'에서 목표로 했던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판정'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부터 '에이어'의 이 주장을 재진술하며 풍부하게 설명하는 식으로 전개될 것입니다. 기대하면서 읽어봅시다.

**\*하이라이트 문장\***

③ 이러한 상황에서 에이어는 도덕적으로 옳고 그름에 관한 문장인 도덕 문장이 진리 적합성, 즉 참 또는 거짓일 수 있다는 성질을 갖지 않는다는 주장을 펼쳤다.

인문 지문에서 한 사람은 하나의 주장만 펼칩니다. 그 주장이 처음으로 제시되는 순간이니, 꼼꼼하게 읽고 이해해두어야 합니다.

**(가) 2문단**

① 에이어는 진리 적합성을 갖는 모든 문장은 그 문장에 사용된 단어의 정의를 통해 검증되는 분석적 문장이거나 경험적 관찰에 의해 검증되는 종합적 문장이라는 원리를 바탕으로 도덕 문장은 진리 적합성이 없다고 주장했다. ② 우선 그는 도덕 문장은 분석적이지 않다는 기존의 논의를 수용했다. ③ '선은 A이다.'라는 도덕 문장이 분석적이라면, 술어인 'A'가 주어인 '선'이라는 개념 속에 내포되어 있어야 한다. ④ 하지만 '선'은 속성이나

상상력의 한계가 그 사람의 한계가 된다.

내용을 더 이상 분석할 수 없는 단순 개념이므로 해당 문장은 분석적이지 않다. ⑤ 그렇다고 해서 '선은 A이다.'라는 도덕 문장이 경험적 관찰로 검증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⑥ '선' 그 자체는 우리의 감각으로 검증할 수 없기 때문이다.

**① #주장 제시 #수식된 정의 제시 #단어의 의미 살리기 #재진술**

'에이어'는 '진리 적합성'을 갖는 모든 문장은 '분석적 문장'이거나 '종합적 문장'이라는 원리를 바탕으로 '도덕 문장'은 '진리 적합성'이 없다는 주장을 재진술합니다. '분석적 문장'과 '종합적 문장'은 2017학년도 수능 '과인의 총체주의' 관련 지문에서 제시된 '분석 명제/종합 명제'와 유사한 개념이기에 더 쉽게 이해할 수 있겠지요? 그 문장에 사용된 단어의 정의를 '분석'하여 검증하는 것이 '분석적 문장'이고, 경험적 관찰을 '종합'하여 검증되는 문장이 '종합적 문장'이라는 식으로 단어의 의미를 살려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에이어'는 결국 '도덕 문장'은 '분석적 문장'도 아니고 '종합적 문장'도 아니라는 주장을 할 것이라는 점이지요? 결국 '에이어'가 말하고자 하는 바는 '도덕 문장'에 '진리 적합성'이 없다는 것이니까요.

**②~④ #주장 제시 #재진술 #사례-원리 연결**

우선 '에이어'는 '도덕 문장'이 '분석적'이지 않다는 기존의 논의를 수용했다고 합니다. 기존에도 '도덕 문장'이 '분석적 문장'이 아니라는 것에 이견이 없었나 보네요. 그렇다면 '전통적인 윤리학'은 '도덕 문장'이 '종합적 문장'이라는 전제를 바탕으로 '진리 적합성'을 따지려 했을 것이니 추론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도덕 문장'은 왜 '분석적 문장'이 되지 않을까요? '선은 A이다.'라는 '도덕 문장'이 '분석적'이라면, 술어인 'A'가 '선'이라는 개념 속에 내포되어야 합니다. 즉, '선'을 '정의'하여 '분석'했을 때 '선은 A이다.'라는 문장에 대한 검증이 가능해야 한다는 것이죠. 하지만 '선'은 속성이나 내용을 더 이상 분석할 수 없는 단순 개념입니다. '정의'하여 '분석'하려고 해도, '선' 자체는 말 그대로 그저 '선'일 뿐인 단순 개념이기에 이를 통해 '선은 A이다.'를 검증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것이죠. 이에 '선은 A이다.'와 같은 '도덕 문장'은 '분석적 문장'이라고 볼 수 없는 것입니다. '선'이 정말 'A'와 관련된 것이 맞는지조차 '분석'할 수 없으니까요.

**⑤~⑥ #주장 제시 #재진술 #사례-원리 연결**

한편, '선은 A이다.'라는 '도덕 문장'이 '경험적 관찰'로 검증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선'은 우리의 감각으로 검증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니까요. 즉, '도덕 문장'은 '종합적 문장'도 아니라는 것이죠. 이렇게 '분석적 문장'도 '종합적 문장'도 아닌 '도덕 문장'은 '진리 적합성'을 가질 수 없다는 것이 '에이어'의 주장입니다. 계속해서 같은 말만 하고 있네요.

**\*하이라이트 문장\***

① 에이어는 진리 적합성을 갖는 모든 문장은 그 문장에 사용된 단어의 정의를 통해 검증되는 분석적 문장이거나 경험적 관찰에 의해 검증되는 종합적 문장이라는 원리를 바탕으로 도덕 문장은 진리 적합성이 없다고 주장했다.

'에이어'의 주장은 계속해서 반복될 뿐입니다. '분석적 문장', '종합적 문장'처럼 새로운 정보가 나오더라도, 그 정보를 처리하는 것에만 집중하지 말고 핵심적인 주장 한마디, '도덕 문장은 진리 적합성이 없다.'를 떠올리며 읽어 나갈 수 있어야 합니다.

①도덕 문장은 다양한 감정이나 태도를 표현하고 타인의 감정을 불러일으키는 정서적 의미를 갖는다고 에이어는 주장했다. ②그는 많은 사람들이 도덕 문장이 진리 적합성을 갖는다고 오해하는 것은 도덕 용어의 두 가지 용법을 구분하지 못해서라고 주장한다. ③그에 따르면 도덕 용어는 감정을 표현하는 표현적 용법으로도, 세계에 관한 어떤 사실을 기술하는 기술적 용법으로도 사용될 수 있다. ④만약 '도둑질은 나쁘다.'가 도둑질이 사회적으로 배척된다는 사실을 기술하는 문장이라면, 이 문장은 도덕적으로 옳고 그름에 관한 것이 아니다. ⑤따라서 이 문장은 도덕 문장이 아니고, 경험적으로 검증이 가능하다. ⑥반대로 그 문장이 도둑질에 대한 화자의 감정을 표현한 문장이라면 이는 도덕 문장이며 어떤 사실을 기술한 것이 아니다. ⑦에이어에게는 '도둑질은 나쁘다.'와 같은 도덕 문장을 진술하는 것은 감정을 담은 어조로 '네가 도둑질을 하다니!'라고 말하는 것과 다름없기 때문이다. ⑧그의 주장대로라면 도덕 문장은 감정을 표현하는 도덕 주체로부터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무언가를 기술할 수 없다. ⑨이는 전통적인 윤리학자들의 기본 가정을 부정하는 급진적 주장이지만 윤리학에 새로운 사고를 열어 준 선구적인 면도 있다.

**① #주장 제시 #단어의 의미 살리기**

계속해서 '에이어'의 주장입니다. 그는 '도덕 문장'이 '정서적 의미'를 갖는다고 주장했어요. 단어의 의미 그대로, 화자의 '정서'를 표현하고 타인의 '정서'를 불러일으키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이게 정확히 어떤 의미인지는 몰라도, '도덕 문장은 진리 적합성을 갖지 않는다.'는 '에이어'의 핵심 주장과 관련될 것이라는 점은 분명합니다. 이 생각을 잊지 않은 채로 계속 읽어보도록 합시다.

**②~③ #주장 제시 #재진술 #수식된 정의 제시 #단어의 의미 살리기**

'에이어'는 자신의 주장과 달리 많은 사람들이 '도덕 문장'이 '진리 적합성'을 갖는다고 오해하는 것은 '도덕 용어'의 두 가지 용법을 구분하지 못해서라고 합니다. 중요한 것은 도덕 '문장'과 도덕 '용어'를 구분하는 것입니다. 이미 '에이어'는 '도덕 문장은 곧 '정서적 의미'를 가지는 것으로 규정했기 때문에, 두 가지 용법을 가지는 것은 도덕 '문장'이 아니라 도덕 '용어'임을 정확히 구분하는 것이 중요해요.

어쨌든, 그에 따르면 '도덕 용어'는 '표현적 용법'과 '기술적 용법'이라는 두 가지 용법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단어의 의미 그대로, 전자는 감정을 '표현'하는 '용법'이고 후자는 세계에 관한 어떤 사실을 '기술'하는 '용법'이네요. 아직은 조금 추상적이지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줄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계속 읽어봅시다.

**④~⑤ #사례-원리 연결 #재진술**

이렇게 추상적인 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기 위해, '도둑질은 나쁘다.'라는 문장을 예시로 들고 있습니다. 이 문장이 도둑질이 사회적으로 배척된다는 사실을 '기술'하는 경우, 즉 '나쁘다.'라는 '도덕 용어'가 '기술적 용법'으로 사용된 경우 이 문장은 도덕적으로 옳고 그름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도둑질이 도덕적으로 옳고 그르냐에 대한 것이 아니라, 도둑질은 사회적으로 배척된다는 사실을 '기술'한 것에 불과하니까요. 따라서 이 문장은 '도덕 용어'가 사용되었더라도 '도덕 문장'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나아가 이는 경험적으로 검증이 가능하죠? 정말로 도둑질을 하면 사회적으로 배척되는지 확인하면 되니까요. 즉, 이 문장은 '도덕 문장'이 아니라 '진리 적합성'을 가지는 '종합적 문장'이 되는 것입니다. 이

상상력의 한계가 그 사람의 한계가 된다.

렇게 앞에서 이해한 원리를 사례에 최대한 연결지며 완벽하게 이해하려고 애쓰셔야 해요.

**⑥~⑦ #사례-원리 연결 #재진술 #화제의 흐름**

다음은 그 문장이 도둑질에 대한 화자의 감정을 '표현'한 문장, 즉 '나쁘다.'라는 '도덕 용어'가 '표현적 용법'으로 사용된 경우입니다. 이는 화자의 감정이나 태도를 표현한다는 점에서 '정서적 의미'를 갖는 것으로, '에이어'의 주장에 따르면 '도덕 문장'의 예시라고 할 수 있죠. 어떤 사실을 '기술'한 것이 아니라요. '에이어'의 입장에서 '도둑질은 나쁘다.'와 같은 '도덕 문장'을 진술하는 것은 '네가 도둑질을 하다니!'라고 말하며 감정을 '표현'하는 것과 다름없기 때문에 이러한 판단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런데 앞서 말했듯이 '도덕 문장'은 '분석적 문장'도 '종합적 문장'도 아니기 때문에, '도덕 용어'가 '표현적 용법'으로 사용된 경우에는 '진리 적합성'을 가지지 못합니다. 결국 '에이어'의 핵심 주장이 또 재진술된 것이네요. 나아가 '표현적 용법'='도덕 문장'이라는 주장은 '정서적 의미'='도덕 문장'이라는 3문단 초반부의 주장을 재진술한 것에 불과하구요. 결국 다 같은 말이라는 생각이 들죠?

**⑧~⑨ #주장 제시 #재진술**

이러한 '에이어'의 주장대로라면, '정서적 의미'를 가지고 있는 '도덕 문장'은 감정을 '표현'하는 도덕 주체로부터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무언가를 기술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주장은 '전통적인 윤리학자들의' 기본 가정을 부정하는 급진적 주장이라고 해요. 여기서 '전통적인 윤리학자들'을 보자마자, 1문단의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판정하는 객관적 근거'라는 말이 떠올라야겠지요? '전통적인 윤리학자들'은 '도덕 문장'을 통해 도덕 주체로부터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무언가, 즉 '옳고 그름을 판정할 수 있는 근거'를 기술할 수 있다고 생각했지만, '에이어'의 입장에서 그것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결국 '도덕 문장은 '진리 적합성'을 가지지 않는다'는 한마디를 반복하고 있는 것에 불과한 것이죠. 지독하게 같은 말만 반복되었다는 것을 느껴야 합니다.

**\*하이라이트 문장\***

④만약 '도둑질은 나쁘다.'가 도둑질이 사회적으로 배척된다는 사실을 기술하는 문장이라면, 이 문장은 도덕적으로 옳고 그름에 관한 것이 아니다.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사례를 '도덕 용어의 두 가지 용법'이라는 원리와 일대일로 대응시켜 완벽하게 이해해야 합니다. 나아가 '진리 적합성', '종합적 문장', '정서적 의미'와 같이 해당 사례에 명시적으로 드러나지 않은 개념들까지도 떠올리면서 읽을 수 있어야 해요. 결국 인문 제재의 지문은 다 같은 말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연결하며 정보량을 줄이는 것이 핵심입니다.

**(나) 1문단 (1)**

①논리학에서 제기된 의문이 윤리학의 특정 견해에 대한 비판이 되기도 한다. ②다음 논의는 이를 보여 준다. ③P이면 Q이다. P이다. 따라서 Q이다.'인 논증을 전진 긍정식이라 한다. ④전진 긍정식은 'P이면 Q이다.'와 'P이다.'라는 두 전제가 참이면 결론 'Q이다.'는 반드시 참이라는 뜻에서 타당하다.

**①~② #화제 제시**

갑자기 '논리학'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가)와 (나)는 결국 하나의 지문일 것이기에, 이는 '에이어'의 주장과 연관될 것이예요. 이것이 바로

‘논리학’에서 제기된 의문이 비판하기도 한다는 ‘윤리학의 특정 견해’가 되겠지요? 즉, (나)는 ‘논리학’에서 제기된 의문을 통해 ‘에이어’의 주장을 비판하는 방식으로 구성되어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생각을 하면서 읽어보도록 합시다.

**③~④ #수식된 정의 제시 #단어의 의미 살리기 #재진술**

먼저 ‘논리학’에서 제기된 의문을 이해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를 위한 논의는 ‘전건 긍정식’을 이용해서 이루어지네요. ‘전건 긍정식’에 대해서는 2018학년도 9월 모의평가 ‘상호 배타적인 상태의 공존’ 관련 지문에서도 등장했던 개념이니 익숙하게 느껴셔야 합니다.

아무튼, ‘전건 긍정식’은 ‘P이면 Q이다.’라는 명제가 참일 때, ‘전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는 ‘P이다.’ 역시 참이면 자연스럽게 결론 ‘Q이다.’가 반드시 참이 된다는 ‘논리학’의 법칙입니다. 한 번에 이해가 되지 않는다면, ‘민재가 남자라면 군대에 간다.’와 ‘민재는 남자다.’라는 두 명제가 참인 경우 ‘민재는 군대에 간다.’라는 결론 역시 반드시 참이 된다는 식으로 스스로 사례를 만들어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추상적인 원리는 늘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이해하고 넘어가야 한다는 것을 잊지 마세요.

**(나) 1문단 (2)**

⑤그런데 어떤 문장이 단독으로 진술되는 경우에는 감정이나 태도를 표현할 수 있지만 그 문장이 조건문인 ‘P이면 Q이다.’의 부분으로 포함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⑥‘굴은 맛있다.’는 화자의 선호라는 감정을 표현한다. ⑦하지만 그 문장이 ‘굴은 맛있다면 굴은 비싸다.’처럼 조건문의 일부가 되면 굴에 관한 화자의 선호를 표현하지 않는다. ⑧이에 전건 긍정식의 P가 감정이나 태도를 표현하는 문장일 때 ‘P이면 Q이다.’의 P와 ‘P이다.’의 P 사이에 내용의 차이가 생기므로, 전건 긍정식임에도 두 전제의 참이 결론 ‘Q이다.’의 참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것이 몇몇 논리학자들이 제기한 문제였다. ⑨전건 긍정식인 ‘표절은 나쁘다면 표절을 돕는 것은 나쁘다. 표절은 나쁘다. 따라서 표절을 돕는 것은 나쁘다.’라는 논증은 직관적으로 타당해 보인다. ⑩하지만 ‘표절은 나쁘다.’가 감정을 표현했다면, 위 논증은 타당하지 않다고 해야 한다. ⑪그러므로 에이어의 윤리학 견해를 고수하려면, 도덕 문장을 포함하는 전건 긍정식의 타당성을 부정하거나, 전건 긍정식은 도덕 문장을 포함할 수 없다고 해야 한다. ⑫이 쟁점에 대해 헝크스는 다음과 같이 논의를 전개하였다.

**⑤~⑦ #주장 제시 #재진술 #사례-원리 연결**

어떤 문장이 단독으로 진술되는 경우에는 감정이나 태도를 표현할 수 있습니다. 즉, ‘표현적 용법’을 통해 ‘정서적 의미’를 가지는 것이 가능한 것이죠. 하지만 그 문장이 조건문인 ‘P이면 Q이다.’의 부분으로 포함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고 합니다. 이번에도 너무나 추상적인 원리가 제시된 모습입니다. 뒤에 나올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확실하게 이해할 필요가 있겠지요?

이를 위해 ‘굴은 맛있다.’라는 문장을 사례로 들어주고 있습니다. 이는 화자의 선호라는 감정을 ‘표현한다는 점에서 ‘정서적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문장이 ‘굴은 맛있다면 굴은 비싸다.’처럼 조건문의 일부(여기서는 전건)가 되면, 이는 굴에 대한 화자의 선호를 표현하는 것이 아닙니다. 말 그대로 굴이 맛있다는 상황을 가정하여 ‘기술’하는 것일 뿐, 화자가 굴을 맛있다고 생각한다는 내용이 아니니까요.

이를 다시 추상적인 원리로 정리해봅시다. ‘P이다.’(굴은 맛있다.)가 감

상상력의 한계가 그 사람의 한계가 된다.

정이나 태도를 표현하는 문장일 때, ‘P이면 Q이다.’의 P와 ‘P이다.’의 P 사이에 내용의 차이가 생깁니다. 전자는 굴이 맛있다는 가정의 의미(=기술적 용법)를, 후자는 굴을 맛있다고 생각한다는 ‘정서적 의미’(=표현적 용법)를 담고 있으니까요. 따라서 ‘전건 긍정식’임에도 ‘P이면 Q이다.’와 ‘P이다.’라는 두 전제의 참이 결론 ‘Q이다.’의 참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것이 여기에서 말한 ‘논리학’에서 제기된 의문이었던 것입니다.

**⑨~⑩ #사례-원리 연결 #재진술**

아직도 이해하지 못했을까봐, 친절하게 또 사례를 들어주고 있습니다. ‘표절은 나쁘다면(P이면) 표절을 돕는 것은 나쁘다.(Q이다.) 표절은 나쁘다.(P이다.) 따라서 표절을 돕는 것은 나쁘다.(Q이다.)’라는 논증은 직관적으로 타당해 보입니다. ‘전건 긍정식’의 정석이니깐요. 하지만 여기서 ‘표절은 나쁘다.’(단독으로 진술된 P이다.)가 감정을 표현한 ‘정서적 의미’를 지니고 있다면, 조건문 속 ‘표절은 나쁘다.’와 단독 문장 ‘표절은 나쁘다.’는 서로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기에 ‘표절을 돕는 것은 나쁘다.’라는 결론이 참임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전건 긍정식’의 핵심은 두 전제가 같은 내용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었으니까요. 결국 이 경우 위 논증이 타당하지 않은 논증이 된다는 것이 ‘논리학’에서 제기한 의문입니다. 제시된 두 사례를 바탕으로 완벽하게 이해할 수 있어야 해요.

**⑪~⑫ #재진술 #화제의 흐름**

우리가 미리 생각한 (나)의 화제에 따르면, 이 의문은 ‘에이어’의 주장을 비판하는 흐름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따라서 여기서 ‘에이어’의 주장이 등장하는 것을 어색하게 생각하면 안 돼요. 너무나 당연하게 느껴져야 합니다.

아무튼, ‘에이어’의 윤리학 견해를 고수하기 위해서는 ‘정서적 의미’를 가지는 ‘도덕 문장’을 포함하는 ‘전건 긍정식’의 타당성을 부정하거나, ‘전건 긍정식’은 ‘도덕 문장’을 포함할 수 없다고 해야 합니다. 애초에 ‘정서적 의미’를 가지는 ‘도덕 문장’이 사용될 때 이러한 문제가 생기는 것이니까요. 나아가 ‘에이어’의 주장에 따르면 ‘도덕 문장’은 ‘진리 적합성’을 가지지 않기 때문에, ‘전건 긍정식’의 전제로 기능할 수도 없습니다. ‘전건 긍정식’은 전제들이 ‘참’일 때 결론 역시 ‘참’이라는 법칙인데, 애초에 전제 중 하나를 ‘참’으로 규정할 수 없는 상황인 것이죠. 따라서 ‘도덕 문장’을 ‘전건 긍정식’의 예외로 두어야 ‘에이어’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도덕 문장’만을 ‘전건 긍정식’의 예외로 두는 식의 결론은 매우 부자연스럽습니다. 이에 ‘논리학’에서 제기된 의문이 ‘에이어’의 주장에 대한 비판이 되는 것이겠지요? ‘에이어’의 주장을 따르면 직관적으로 타당한 ‘논리학’의 법칙 하나를 불안정하게 만들어야 하는 큰 불편함이 따르니, 결국 ‘에이어’의 주장 자체가 잘못되었다는 결론을 내린 것이죠. 이렇게 화제와 엮어서 제대로 이해하고 넘어가야 합니다.

그런데 ‘헝크스’라는 사람이 이에 대한 논의를 전개하였다고 합니다. 맥락상 ‘헝크스’는 ‘에이어’의 주장을 옹호할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에이어’에 대한 비판을 더 심화시킬 수도 있겠지요? ‘헝크스’가 과연 뭐라고 할지 기대하면서 읽어보도록 합시다.

**\*생각 심화\***

정확하게 말하면, ‘굴은 맛있다.’와 ‘표절은 나쁘다.’는 그 종류가 다릅니다. 둘 다 화자의 감정이나 태도를 드러낸다는 점에서 ‘정서적 의미’를 가지고 있기는 하지만, 전자는 그저 화자의 선

호를 드러내는 일반적인 문장일 뿐이고 후자는 '나쁘다.'라는 '도덕 용어'가 사용된 '도덕 문장'이니까요. 이에 '굴은 맛있다.'라는 일반적인 사례를 통해 '논리학'에서 제기하는 의문을 설명하고, '표절은 나쁘다.'라는 구체적인 '도덕 문장'의 사례를 통해 이것이 '에이어'의 주장을 어떻게 비판하는지를 보여 주고 있다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결국 '헝크스'가 전개할 논의는 '표절은 나쁘다.'와 같은 '도덕 문장'에 대한 것으로 국한될 것이라는 예상까지 할 수 있었습니다. '헝크스'가 개입한 이 지문의 핵심 '쟁점'은 '에이어'의 주장에 대한 것이니까요.

실전에서 생각하기 매우 어려운 부분이기도 하지만, 복습하는 과정에서라도 정확하게 독해하려는 의지를 가지고 이렇게까지 읽어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이라이트 문장\***

①그러므로 에이어의 윤리학 견해를 고수하려면, 도덕 문장을 포함하는 전건 긍정식의 타당성을 부정하거나, 전건 긍정식은 도덕 문장을 포함할 수 없다고 해야 한다.

이 문장에는 없는 '정서적 의미'라는 표현을 떠올리면서, 왜 이런 결론이 나오는지 완벽하게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앞의 사례들을 원리와 연결지어 완벽하게 이해하는 과정이 선행되었어야 했죠? 잘 해내고 있을 것이라 믿습니다.

**(나) 2문단 (1)**

①'표절은 나쁘다.'라는 문장은 표절이라는 대상에 나쁜이라는 속성을 부여하는 내용을 가진다. ②그리고 화자의 문장 진술은 그 내용과 완전히 무관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런 문장은 단독으로 진술되든 그렇지 않은 판단적이다. ③문장이 판단적이라는 것은, 대상에 속성을 부여하는 내용을 지니는 것이 그 문장의 본질이라는 것을 뜻한다. ④도덕 문장을 비롯한 모든 판단적 문장은 참 또는 거짓일 수 있다. ⑤조건문에 포함된 문장도 판단적이라는 점에서 단독으로 진술될 때와 내용의 차이가 없다. ⑥그러므로 도덕 문장을 포함하는 전건 긍정식은 타당해 보일 뿐 아니라 실제로도 타당하다.

**①~② #주장 제시 #사례-원리 연결**

'헝크스'의 주장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헝크스' 역시 한마디만 할 것이니 그 주장을 정확하게 인지해야겠죠? 먼저 '표절은 나쁘다.'라는 문장은 표절이라는 '대상'에 나쁨이라는 '속성'을 부여하는 내용을 가집니다. 차분하게 납득하면서 읽어야 합니다. 충분히 납득할 수 있는 내용이에요. 그리고 화자의 문장 진술은 그 내용과 완전히 무관할 수는 없습니다. '표절은 나쁘다.'와 같은 화자의 문장 진술은 '나쁘다.'와 같은 내용과 완전히 무관하지 않다는 것이죠. 이에 그런 문장이 단독으로 진술되든 그렇지 않든, 즉 조건문의 일부로 쓰이든 '판단적'이라고 합니다. 조건문의 일부로 쓰여 단순한 '가정'을 하는 것처럼 보이더라도, 이 역시 '나쁘다.'와 같은 내용과 관련이 있기는 하다는 것입니다.

**③ #정의 제시 #단어의 의미 살리기 #사례-원리 연결**

이를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것은 문장이 '판단적'이라는 개념입니다. 이는 단어의 의미 그대로, 대상에 속성을 부여하는 식으로 '판단'하는 내용을 지니는 것이 그 문장의 본질이라는 것을 뜻합니다. 다시 말해, 화

상상력의 한계가 그 사람의 한계가 된다.

자가 표절과 같은 '대상'에 나쁘다는 '속성'을 부여하는 식으로 '판단'하는 내용을 지니는 것은 화자의 문장 진술이 단독으로 진술되든 그렇지 않은 '판단적'이라는 점에서 동일한 것이죠. 어쨌든 화자의 문장 진술은 그 내용과 완전히 무관할 수 없으니까요.

**④ #주장 제시 #비교/대조 #재진술**

'도덕 문장'을 비롯한 모든 '판단적 문장'은 참 또는 거짓일 수 있다, 즉 '진리 적합성'을 가진다는 것이 '헝크스'의 생각입니다. '도덕 문장' 역시 대상에 화자의 정서라는 속성을 부여하는 것을 본질로 한다는 점에서 '판단적 문장'이라고 할 수 있다는 점, 충분히 납득할 수 있겠죠? 화자가 부여한 속성이 참인지 거짓인지 따지는 게 가능하기는 하다는 것이죠. 이렇게 '도덕 문장'에도 '진리 적합성'이 있다고 한다는 점에서 '헝크스'의 주장은 '에이어'와는 대조된다고 할 수도 있었습니다. 나아가 일단 '도덕 문장' 역시 '전건 긍정식'의 전제로 가능하며 '참'일 수 있다는 점에서, '에이어'의 윤리학 견해를 고수하기 위해 '도덕 문장'을 '전건 긍정식'의 예외로 둘 필요도 없어지겠죠. 이렇게 앞 문단의 내용과 엮어 풍부하게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⑤~⑥ #주장 제시 #재진술**

어쨌든, 조건문에 포함된 문장도 '판단적'이라는 점에서 단독으로 진술될 때와 내용의 차이가 없습니다. 즉, 조건문에 포함되어 진술되든 단독으로 진술되든 '판단적 문장'은 '판단적'이라는 점에서 동일한 내용을 가진다는 것이죠. 이는 2번 문장의 재진술이라고 할 수 있겠죠? '헝크스'는 계속해서 이 한마디만 하고 있습니다.

이에 '도덕 문장'을 포함하는 '전건 긍정식'은 타당해 보일 뿐 아니라, 실제로도 타당하다는 것이 '헝크스'의 주장입니다. '도덕 문장' 역시 '진리 적합성'을 가지는 '판단적 문장'의 하나라는 점에서, '도덕 문장'이 단독으로 진술되든 그렇지 않은 '판단적'이라는 동일한 내용을 가지기에 '도덕 문장'을 포함하는 '전건 긍정식'은 타당하다는 것이죠. '논리학'에서 제기한 의문을 멋지게 해결한 모습이에요? '논리학'에서는 '도덕 문장'이 단독으로 진술될 때와 그렇지 않을 때 서로 다른 내용을 가진다고 했는데, 이를 정면으로 반박한 것이니까요.

**\*하이라이트 문장\***

⑤조건문에 포함된 문장도 판단적이라는 점에서 단독으로 진술될 때와 내용의 차이가 없다.

'내용의 차이가 없다.'라는 말에 주목할 수 있어야 합니다. '논리학'에서 제기한 의문을 '헝크스'의 주장을 통해 직접적으로 반박하는 부분이니까요. 다른 문장을 완벽하게 이해하지는 못하더라도, 최소한 이 문장 하나만큼은 확실하게 체크했어야 합니다.

**(나) 2문단 (2)**

⑦그렇다면 'P이면 Q이다.'에 포함된 'P이다.'가 단독으로 진술된 경우와 다른 점은 무엇인가? ⑧가령 '굴은 맛있다.'는, '굴은 맛있다면 굴은 비싸다.'라는 조건문에 포함되는 경우 화자가 대상에 속성을 부여하는 행위를 하는 것은 아니기에 그것의 판단적 본질을 발현하지 못한다. ⑨그러나 이 맥락에서도 조건문에 포함된 '굴은 맛있다.'는 판단적 본질을 여전히 잃지 않는다. ⑩다시 말해, 그 문장 자체는 대상에 속성을 부여하는 내용을 지닌다.

**⑦~⑩ #주장 제시 #사례-원리 연결 #재진술**

이러한 '헝크스'의 주장에 따르면, 'P이면 Q이다.'에 포함된 'P이다.'와 단독으로 진술된 'P이다.'는 동일한 내용을 가지기에 다른 것이 없어 보입니다. 그렇다면 굳이 이들을 구분하여 '두' 전제로 삼을 필요도 없기에, 무언가 다른 점이 있기는 할 것입니다.

이를 설명하기 위해 '굴은 맛있다.'는 사례를 다시 가져오고 있습니다. 이 문장이 '굴은 맛있다면 굴은 비싸다.'라는 조건문에 포함되는 경우 화자가 대상에 속성을 부여하는 행위를 하는 것은 아니기에 그것의 '판단적 본질'을 발현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판단적 본질'을 잃는 것은 아니라고 해요. 그러니까, '굴은 맛있다.'는 문장 자체는 단독으로 진술되든 그렇지 않은 '판단적'이라는 점에서 동일한 내용을 가지지만, 전자는 그 '판단적'이라는 '본질'이 발현되고 후자는 그렇지 않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논리학'에서 이 둘이 다르다는 오해를 할 것이지만, 사실 이들은 본질적으로 같기에 '도덕 문장'이 포함된 '전건 긍정식' 역시 타당하다는 것이 '헝크스'가 일관적으로 주장하는 내용이네요.

**\*생각 심화\***

이 문단에서 초반부는 '에이어'의 주장이 폐기되지 않게끔 하는 부분이기에 '표절은 나쁘다.'라는 '도덕 문장'에 국한시켜 내용이 전개되고 있고, 후반부는 '판단적 문장' 전반에 대한 내용이기에 '굴은 맛있다.'와 같이 '도덕 문장'은 아니지만 '판단적 문장'이기는 한 문장을 통해 설명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겠죠? 앞 문단의 '생각 심화'와 엮어서 이해해보도록 합시다.

**\*하이라이트 문장\***

⑨그러나 이 맥락에서도 조건문에 포함된 '굴은 맛있다.'는 판단적 본질을 여전히 잃지 않는다.

'본질'을 발현하지 못할 뿐, 여전히 잃은 것은 아니라는 서술을 납득할 수 있어야 합니다. '판단적 문장'이 단독으로 진술되는 경우와 조건문의 일부로 진술되는 경우가 다르긴 다르지만 결국 같은 내용을 담고 있다는 것이 '헝크스'가 일관되게 주장하던 내용이니깐요. 결국 다 같은 말을 하고 있다는 생각으로 정보량을 줄여내고 납득에 성공해야 합니다.

선지	①	②	③	④	⑤
선택률	12%	7%	16%	40%	25%

**12. (가)에 나타난 [에이어]의 입장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④**

- '도덕 문장'은 '정서적 의미'를 가지는 것으로, '분석적 문장'도 '종합적 문장'도 아니기 때문에 '진리 적합성'을 가질 수 없다는 '에이어'의 입장에 대해 묻는 문제입니다. 가볍게 해결해봅시다.

① 도덕 용어를 기술적 용법으로 사용한 문장은 검증이 가능하다.

명시적 근거	(가) 3문단 4번~5번 문장
실전에서의 판단 과정	이 경우엔 종합적 문장이었지.
해설	'도덕 용어'를 '기술적 용법'으로 사용한 문장은 '도덕 문장'이 아닌 '종합적 문장'으로, 검증이 가능해 '진리 적합성'을 가지는 문장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이를 '도덕 문장'으로 오해해 '도덕 문장'이 '진리 적

명시적 근거	(가) 3문단 6번~7번 문장
실전에서의 판단 과정	그러니까 진리 적합성이 없지.
해설	'표현적 용법'을 활용한 '도덕 문장'은 '에이어'의 입장에서는 감정을 담은 어조로 그 감정을 표현하는 문장과 다름없습니다. 즉, 둘 다 '정서적 의미'를 가진다는 점에서 동일한 의미를 표현하는 것이죠.

② 표현적 용법을 활용한 도덕 문장은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는 문장과 동일한 의미를 표현한다.

명시적 근거	(가) 2문단 1번~4번 문장
실전에서의 판단 과정	분석적 문장의 정의네.
해설	지문에 제시된 '분석적 문장'의 정의 그 자체입니다. '에이어'는 주어의 '정의'를 통해 술어가 그 주어에 내포되어 있는지 검증할 수 있는 '주어-술어의 의미 관계'에 있는 문장을 '분석적 문장'이라고 정의했죠? 이 말을 정확하게 이해하지는 못해도, 적어도 같은 의미를 담은 문자들이 나열되어 있다는 것 정도는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③ 주어와 술어의 의미 관계를 통해 어떤 문장을 검증할 수 있다면 그 문장은 분석적 문장이다.

명시적 근거	(가) 3문단 3번 문장
실전에서의 판단 과정	사실을 기술하면 애초에 표현적 용법이 아니지.
해설	'기술적 용법'과 '표현적 용법'의 정의를 묻고 있습니다. 전자의 경우 세계에 관한 어떤 사실을 '기술'하는 것이고, 후자의 경우 감정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어떠한 사실을 '기술'한다는 것만으로도 그것은 '기술적 용법'이 사용된 것이지 '표현적 용법'이 될 가능성은 없는 것이죠. '도덕 용어가 기술하는 사실의 종류'가 아니라, '사실 기술 / 감정 표현 여부'에 따라 '기술적 용법'과 '표현적 용법'으로 구분되는 것이기에 틀린 선지입니다. '기술'과 '표현'이라는 단어의 의미를 살려 그 개념을 정확히 이해할 것을 요구한 선지네요.

④ 도덕 용어의 용법은 도덕 용어가 기술하는 사실의 종류에 따라 기술적 용법과 표현적 용법으로 구분할 수 있다.

명시적 근거	(가) 3문단 2번~5번 문장
실전에서의 판단 과정	그렇지.

⑤ 도덕 문장에 진리 적합성이 있다는 오해는 도덕 문장을 세계에 대한 어떠한 사실을 기술한 것으로 해석한 데에 기인한다.

명시적 근거	(가) 3문단 2번~5번 문장
실전에서의 판단 과정	그렇지.

해설	‘에이어’는 사람들이 ‘도덕 용어’가 ‘기술적 용법’으로 사용된 경우를 ‘도덕 문장’으로 착각한 것이 ‘도덕 문장’에 ‘진리 적합성’이 있다는 오해를 낳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도덕 용어’가 ‘기술적 용법’으로 사용되는 경우에는 ‘진리 적합성’을 가질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에이어’에 따르면 ‘도덕 문장’은 ‘도덕 용어’가 ‘표현적 용법’으로 쓰인 경우를 의미하기에, ‘도덕 문장’은 ‘진리 적합성’을 가지지 않는다고 판단해야 했습니다. ‘에이어’의 핵심 주장을 정확히 이해하고 있는지 묻는 선지였습니다.
----	---

선지	①	②	③	④	⑤
선택률	11%	12%	22%	19%	36%

13. [A]로부터 추론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㉔

- [A]는 ‘행크스’의 주장이 제시된 부분입니다. ‘행크스’는 ‘판단적 문장’이 단독으로 진술되든 조건문의 일부로 진술되든 똑같이 ‘판단적 본질’을 가지기에 그 내용이 동일하고, 이에 ‘도덕 문장’을 포함하는 ‘전건 긍정식’은 타당하다는 주장을 펼쳤습니다. 인문 제재의 지문답게 각 인물의 주장만을 집요하게 묻고 있죠? 가볍게 해결해봅시다.

- ① ‘굵은 맛이었다면 굵은 비짜다.’에 포함된 ‘굵은 맛있다.’는 판단적이지 않다.

명시적 근거	(나) 2문단 8번~10번 문장
실전에서의 판단 과정	판단적 본질을 잃지는 않지.
해설	‘굵은 맛있다.’는 ‘판단적 문장’이 조건문의 일부로 진술된 경우라도, 그 ‘판단적 본질’을 잃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 ‘행크스’의 핵심 주장입니다. 이를 바탕으로 하면 틀린 선지네요.

- ② ‘표절은 나쁘다.’는 단독으로 진술되었을 때에만 참 또는 거짓일 수 있다.

명시적 근거	(나) 2문단 1번~4번 문장
실전에서의 판단 과정	언제든 판단적 본질을 잃지 않지.
해설	‘표절은 나쁘다.’와 같은 ‘판단적 문장’은 단독으로 진술되든 조건문의 일부로 진술되든 그 ‘판단적 본질’을 잃지 않는 동일한 내용을 가집니다. 또한 모든 ‘판단적 문장’은 참 또는 거짓일 수 있기에, ‘표절은 나쁘다.’가 단독으로 진술되지 않았을 때에도 참 또는 거짓일 수 있다고 봐야 정확하겠네요.

- ③ ‘굵은 맛있다.’는 조건문의 일부로 진술될 때는 대상에 속성을 부여하는 내용을 지니지 않는다.

명시적 근거	(나) 2문단 8번~10번 문장
실전에서의 판단 과정	본질을 잃지는 않는다니까.

해설	계속해서 똑같은 내용입니다. ‘굵은 맛있다.’와 같은 ‘판단적 문장’이 조건문의 일부로 진술될 때에도 대상에 속성을 부여하는 내용, 즉 ‘판단적 본질’을 잃지는 않습니다.
----	---

- ④ 화자는 굵이 맛있음의 속성을 가진다는 내용과 완전히 무관한 체로 ‘굵은 맛있다.’를 진술할 수 있다.

명시적 근거	(나) 2문단 2번 문장
실전에서의 판단 과정	완전히 무관할 수 없다는 게 핵심이었지.
해설	화자의 문장 진술은 그 문장이 어떻게 쓰이든 그 내용과 완전히 무관할 수는 없기 때문에, ‘판단적 문장’이 단독으로 진술되든 그렇지 않든 ‘판단적’이었습니다. ‘행크스’의 주장을 이루는 핵심 전제를 무시한 선지이기에 틀렸다고 해야겠네요.

- ⑤ ‘표절은 나쁘다.’는 화자가 표절에 나쁨을 부여하지 않는 맥락에서도 그것의 판단적 본질을 유지할 수 있다.

명시적 근거	(나) 2문단 7번~10번 문장
실전에서의 판단 과정	본질을 발현하지 못할 뿐, 잃지는 않지.
해설	‘표절은 나쁘다.’를 말하는 화자가 표절에 나쁨을 부여하지 않는 맥락은 해당 문장이 조건문에 포함되었을 때입니다. 이때는 단순히 ‘가정’을 하는 것이기에, 화자가 나쁨이라는 속성을 부여한다는 행위를 하는 것은 아니죠. 하지만 이때에도 그 문장의 ‘판단적 본질’ 자체는 유지된다는 것이 ‘행크스’의 핵심 주장이었습니다. 가볍게 답으로 고를 수 있겠네요.

선지	①	②	③	④	⑤
선택률	8%	7%	18%	53%	14%

14. 다음은 윗글을 읽고 학생이 작성한 학습 활동지이다. 윗글을 바탕으로 할 때, 적절하지 않은 것은? ㉔

[진술 1]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도덕적 사실이 있다.

- 전통적인 윤리학자: 옳다. 도덕적 판단의 근거는 도덕 주체로부터 독립적으로 존재하기 때문이다. .... ①

명시적 근거	(가) 3문단 8번~9번 문장
실전에서의 판단 과정	이런 가정을 에이어가 부정했지.
해설	‘에이어’의 주장대로라면, ‘도덕 문장’은 감정을 표현하는 도덕 주체로부터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무언가, 즉 ‘도덕적 판단의 근거’를 기술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 ‘전통적인 윤리학자들’의 기본 가정을 부정하는 급진적 주장이었다고 했으니, 자연스럽게 ‘전통적인 윤리학자들’은 도덕 주체로부터 독립

	적으로 존재하는 무언가, 즉 '도덕적 판단의 근거'를 기술할 수 있다는 가정을 했음을 생각할 수 있겠네요. 그 내용을 그대로 옮겨주고 있는 선지죠?
--	--

**[진술 1]**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도덕적 사실이 있다.  
 • 에이어: 옳지 않다. 도덕 문장은 도덕 주체로부터 독립적일 수 없기 때문이다. .... ②

명시적 근거	(가) 3문단 8번 문장
실전에서의 판단 과정	에이어의 주장 그 자체네.
해설	1번 선지와 엮어서 이해할 수 있겠죠? '에이어'의 이러한 주장은 '전통적인 윤리학자들'의 기본 가정을 부정하는 급진적 주장이었습니다.

**[진술 2]** 도덕 문장은 참 또는 거짓이라는 속성을 갖는다.  
 • 에이어: 옳지 않다. 도덕 문장은 분석적이지도 종합적이지도 않기 때문이다. .... ③

명시적 근거	(가) 2문단 전체
실전에서의 판단 과정	에이어의 주장 그 자체네.
해설	'도덕 문장'은 '분석적 문장'도 '종합적 문장'도 아니기에 '진리 적합성'을 가지지 않는다는 것, '에이어'의 주장 그 자체였죠?

**[진술 3]** 전건 긍정식의 두 전제에 공통으로 포함된 도덕 문장은 내용이 다르다.  
 • 에이어: 옳다. 도덕 문장은 전건 긍정식의 전제로 사용되던 진리 적합성을 갖기 때문이다. .... ④

명시적 근거	(가) 1문단 3번 문장, (나) 1문단 8번~11번 문장
실전에서의 판단 과정	에이어가 그렇게 주장할 리가.
해설	'에이어'는 애초에 '도덕 문장'에는 '진리 적합성'이 없다는 것을 못박아 두었습니다. 따라서 '도덕 문장'이 '전건 긍정식'의 전제로 사용되더라도 '진리 적합성'을 갖지는 못한다고 할 것이에요. 이러한 '에이어'의 주장 때문에, '논리학'에서는 '전건 긍정식'에서 '도덕 문장'을 예외로 두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의문을 제기한 것이었죠?

**[진술 3]** 전건 긍정식의 두 전제에 공통으로 포함된 도덕 문장은 내용이 다르다.  
 • 행크스: 옳지 않다. 단독으로 진술된 문장은 조건문의 일부로 사용될 때와 내용 차이가 없기 때문이다. .... ⑤

명시적 근거	(나) 2문단 5번 문장, (나) 2문단 9번~10번 문장
실전에서의 판단 과정	그렇지.
해설	'행크스'의 핵심 주장을 그대로 담고 있습니다.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되겠죠?

선지	①	②	③	④	⑤
선택률	25%	16%	19%	24%	16%

15. 윗글을 바탕으로 ㉠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 몇몇 윤리학자들이 제기한 문제

- '전건 긍정식'의 P가 감정이나 태도를 표현하는 '정서적 의미'를 가지고 있을 때, 'P이면 Q이다.'의 P는 이와 달리 감정이나 태도를 표현하지 않기에 동일하지 않고, 결국 두 전제가 모두 참이라고 해도 결론 'Q이다.'가 참임을 보장할 수 없다는 것이 ㉠의 내용이었습니다. 완벽하게 이해하고 있으니 가볍게 답을 골라봅시다.

① 에이어의 윤리학 견해가 옳다면 전건 긍정식이 직관적으로 타당해 보이게 된다는 점에서, ㉠은 에이어에 대한 비판이 된다.

명시적 근거	(나) 1문단 5번~11번 문장
실전에서의 판단 과정	타당해 보이는데 왜 비판이야.
해설	'에이어'의 윤리학 견해가 옳든 그러든, '전건 긍정식'은 직관적으로 타당해 보이는 논리학 법칙입니다. 실제로 (나) 1문단 9번 문장에서 '표절은 나쁘다.'라는 '도덕 문장'이 쓰인 '전건 긍정식'이 직관적으로 타당해 보인다고 하기는 했죠. 물론 ㉠이 '에이어'에 대한 비판이 되는 것은 (나)의 화제 그 자체이므로 맞지만, 그 이유를 잘못 설정하였기에 틀린 선지네요. 정확히는 '에이어'의 윤리학 견해가 옳다면 '도덕 문장'이 사용된 '전건 긍정식'의 실질적 타당성을 보장할 수 없다는 점이 ㉠을 '에이어'에 대한 비판으로 이끄는 요인이었습니다. '직관적'으로는 타당해 보이더라도, '실질적'으로는 타당하지 않게 한다는 점에서 비판한다는 것이죠.  단순히 ㉠이 '에이어'를 비판한다는 흐름을 잡는 것을 넘어, 어떤 점에서 비판할 수 있는 것인지까지 정확히 이해할 것을 요구한 매우 어려운 문제입니다. 확실하게 복습하도록 합니다.

② ㉠에 따르면, 도덕 문장을 포함하는 전건 긍정식이 타당하다면 도덕 문장이 감정을 표현한다는 견해는 수용될 수 없다.

명시적 근거	(나) 1문단 5번~11번 문장
실전에서의 판단 과정	에이어의 견해가 옳으면 도덕 문장을 포함하는 전건 긍정성이 타당하지 않다고 해야지.
해설	㉠이 제기된 상황에서 '에이어'의 윤리학 견해, 즉 '도덕 문장'이 감정을 '표현'한다는 견해를 수용하기 위해서는 '도덕 문장'을 포함하는 '전건 긍정식'의 타당성을 부정하거나 '전건 긍정식'은 '도덕 문장'을 포함할 수 없다고 해야 합니다. 이에 대한 대우 명제가 2번 선지죠? 지문의 내용 그 자체에 대한 대우 명제이니 당연히 맞는 선지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결해도 좋고, 대우 명제를 떠올리지 못했다면 다음과 같이 해결하시면 됩니다. '도덕 문장'을 포함하는 '전건 긍정식'이 타당하다는 것은, '도

	<p>덕 문장'이 단독으로 진술된 경우와 조건문의 일부로 진술된 경우의 의미가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의 입장에 따르면 '도덕 문장'이 단독으로 진술될 때 '정서적 의미'를 지닌다고 하면, 조건문의 일부로 진술될 때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따라서 '도덕 문장'을 포함하는 '전건 긍정식'이 타당하다면 '도덕 문장'이 감정을 표현하는 '정서적 의미'를 지니지 않는다고 해야 합니다. 그래야 조건문의 일부로 진술될 때와 마찬가지로 의미를 가질 것이고, 이에 '도덕 문장'이 포함된 '전건 긍정식'이 타당해질 것이니까요. 이런 생각의 흐름에 따르더라도 적절한 선지임을 알 수 있겠네요.</p>
--	---

③ ㉠은 전건 긍정식이 타당하려면 두 전제 모두에 나타난 문장의 내용이 일치해야 함에 기초한다.

명시적 근거	(나) 1문단 4번~8번 문장
실전에서의 판단 과정	그렇지.
해설	㉠은 '전건 긍정식'이 타당하려면 두 전제 모두에 나타난 문장의 내용이 일치해야 함에 기초하여 제기된 의문입니다. '에이아'의 주장을 따르면 이와 달리 두 전제에 나타난 문장의 내용이 달라진다는 것이 결국 ㉠이 주장하는 바였죠?

④ ㉠은 도덕 문장뿐 아니라 개인적 선호를 나타내는 문장에 대해서도 제기될 수 있다.

명시적 근거	(나) 1문단 5번~8번 문장
실전에서의 판단 과정	굵은 맛있다!
해설	㉠은 '표절은 나쁘다.'와 같은 '도덕 문장'뿐 아니라 '굵은 맛있다.'처럼 개인적 선호를 나타내는 문장에 대해서도 제기될 수 있는 의문이었습니다. '생각 심화'를 통해 생각했던 내용이 그대로 선지화된 모습 이죠? 지문을 읽으면서 미리 생각하지 못했더라도, '개인적 선호를 나타내는 문장'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 생각했다면 충분히 판단할 수 있는 선지였을 것입니다.

⑤ 도덕 문장을 판단적이라고 보는 이론에 따르면 ㉠은 애당초 발생하지 않는다.

명시적 근거	(나) 2문단 전체
실전에서의 판단 과정	헝크스의 입장이지.
해설	'도덕 문장'은 '판단적'이라고 보는 이론은 '헝크스'가 주장하는 것입니다. 이에 따르면 애초에 '도덕 문장'이 쓰이더라도 '전건 긍정식'의 두 전제의 내용이 다르지 않기에, 애당초 ㉠이 발생하지 않겠죠? 끊임없이 인물의 주장을 정확히 체크했는지 묻고 있습니다.

선지	①	②	③	④	⑤
선택률	22%	11%	21%	28%	18%

16. 윗글과 <보기>를 비교하여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자선은 좋다.'는 자선에 대한 찬성, '폭력은 나쁘다.'는 폭력에 대한 반대라는 태도를 표현한다. 도덕 문장을 포함하는 '자선은 좋다'면 봉사는 좋다.'라는 조건문은 '태도에 대한 태도'를 표현한다. 위와 같은 주관적 태도들에는 참, 거짓이 없다.

- <보기>부터 꼼꼼하게 독해해봅시다. '자선은 좋다.', '폭력은 나쁘다.'는 모두 자선 및 폭력에 대한 태도를 표현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문장을 포함하는 '자선은 좋다면 봉사는 좋다.'라는 조건문을 '도덕 문장을 포함하는 조건문'으로 정의한 것으로 보아, <보기>의 글쓴이 역시 '에이아'의 주장처럼 태도를 표현하는 '정서적 의미'를 가진 문장을 '도덕 문장'으로 정의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겠네요.

어쨌든, '자선은 좋다면 봉사는 좋다.'라는 조건문은 전제와 결론 모두 태도로 이루어져 있는, '태도에 대한 태도'를 표현하는 문장입니다. 이는 주관적 태도들이기에 참, 거짓이 없다는 것이 <보기>의 주장이네요. 이 역시 '도덕 문장'은 '진리 적합성'을 가지지 않는다는 '에이아'의 주장과 일맥상통하는 것이죠?

'자선은 좋다면 봉사는 좋다.'와 '자선은 좋다.'가 나타내는 태도를 지니면서, '봉사는 좋다.'에 반대하는 것은 비일관적이다. '자선은 좋다면 봉사는 좋다. 자선은 좋다. 따라서 봉사는 좋다.'가 타당하다는 것은 이런 뜻이다.

- 이때, '자선은 좋다면 봉사는 좋다.'와 '자선은 좋다.'라는 표현은 'P이면 Q이다.'와 'P이다.'라는 '전건 긍정식'의 두 전제에 대응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기>의 글쓴이는 태도에 대해서는 참, 거짓을 따질 수 없다고 생각하기에, 이러한 전제가 '참'이라는 표현 대신 '나타내는 태도를 지니면서'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이에 동의하는 주관적 태도를 지니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때 '봉사는 좋다.'라는 결론에 대해서는 반대하는 태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전제에는 동의하는 태도를 가지고 있으면서 같은 내용을 품고 있는 결론은 반대하는 태도를 가지는 것이라는 점에서 '비일관적'이라는 것이 <보기>의 글쓴이가 가진 생각입니다.

결국, <보기>의 글쓴이에 따르면 '자선은 좋다면 봉사는 좋다. 자선은 좋다. 따라서 봉사는 좋다.'라는 '전건 긍정식'이 타당하다는 것은, 전제가 모두 참일 때 결론도 반드시 참이기 때문이 아니라 전제에 모두 동의하는 '태도'를 가지고 있으면 결론에도 반드시 동의하는 '태도'를 '일관되게' 가질 것이라는 점에서 타당한 것이죠. 이는 '논리학'에서 제기된 문제를 '에이아'의 윤리학 견해를 고수하면서 '헝크스'와는 다른 방식으로 해결하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까다롭게 출제되었기에 <보기>를 정리하는 게 결코 쉽지 않았겠지만, 이렇게 정리해놓은 상태로 가볍게 답을 골라보도록 합시다.

① 도덕 문장이 태도나 감정을 표현한다는 주장은, 도덕 문장을 포함하는 조건문이 '태도에 대한 태도'를 표현한다는 <보기>의 주장과 상충하는군.

명시적 근거	<보기>, (가) 3문단 1번 문장
실전에서의 판단 과정	영 똑같은 말 하는 거 아니야?

해설	<p>‘도덕 문장’이 태도가 감정을 표현하는 ‘정서적 의미’를 가진다는 것은 ‘에이어’의 주장이었습니다. 이는 ‘도덕 문장’을 포함하는 조건문이 ‘태도에 대한 태도’를 표현한다는, 즉 ‘도덕 문장’이 ‘태도’를 표현하는 것이라는 &lt;보기&gt;의 주장과 일맥상통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지요? 그런데 이러한 주장들이 상충한다고 하고 있으니 적절하지 않은 선지입니다. &lt;보기&gt;는 상당히 어렵게 제시해놓고 답은 쉽게 나오는 형태로 출제했네요. 앞으로는 문제 역시 상당히 어려워질 수 있다는 것이니, &lt;보기&gt;의 완벽한 정리 역시 놓치지 말고 챙겨가도록 합시다.</p>
----	--

② 논증의 타당성이 전제와 결론의 참에 의해 규정된다는 주장은, 타당성을 논증에 나타난 태도 사이의 관계에 의해 규정할 수 있다는 <보기>의 주장과 상충하는군.

명시적 근거	<보기>, (나) 1문단 4번 문장
실전에서의 판단 과정	<보기>를 정리한 내용 그대로네.
해설	<p>&lt;보기&gt;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한 생각을 그대로 담고 있죠? ‘전건 긍정식’과 같은 논증의 타당성이 전제와 결론의 참에 의해 규정된다는 것이 일반적인 ‘논리학’에서의 주장인데, &lt;보기&gt;는 논증에 나타난 태도 사이의 관계에 의해 규정할 수 있다며 이와 상충되는 주장을 했습니다.</p>

③ 무엇이 윤리적으로 옳고 그른지에 대한 객관적 기준을 세워야 한다는 주장은, 도덕 문장은 찬성과 반대라는 주관적 태도를 나타낸다는 <보기>의 주장과 상충하는군.

명시적 근거	<보기>, (가) 1문단 1번 문장
실전에서의 판단 과정	전통적인 윤리학과 상충하지.
해설	<p>무엇이 윤리적으로 옳고 그른지에 대한 객관적 기준을 세워야 한다는 주장은 ‘전통적인 윤리학’의 주장입니다. ‘에이어’와 &lt;보기&gt;의 글쓴이는 이에 대해 ‘도덕 문장’은 ‘주관적 태도’를 표현하는 것이라는 상충된 주장을 하죠?</p>

④ ‘굳은 맛있다.’가 굳에 대한 화자의 선호를 표현한다는 주장은, ‘자선은 옳다.’가 자선에 대한 화자의 찬성을 표현한다는 <보기>의 주장과 상충하지 않는군.

명시적 근거	<보기>, (나) 1문단 6번 문장
실전에서의 판단 과정	둘 다 태도에 대한 것이지.
해설	<p>‘굳은 맛있다.’가 굳에 대한 화자의 선호를 표현한다는 (나)의 주장과, ‘자선은 옳다.’가 자선에 대한 화자의 찬성을 표현한다는 &lt;보기&gt;의 글쓴이는 모두 이와 같은 문장들이 화자의 태도를 드러낸다고 본다는 점에서 상충하지 않습니다. 물론 이러한 관점을 바탕으로 뻗어나가는 추가적인 주장에서는</p>

	(나)와 <보기>의 주장이 차이를 보이겠지만, 이 주장 자체는 상충하지 않는다고 판단할 수 있겠지요?
--	--

⑤ ‘도둑질은 나쁘다.’가 화자의 정서를 표출하므로 진리 적합성이 없다는 주장은, 폭력에 대한 화자의 태도를 표현하는 문장이 참, 거짓일 수 없다는 <보기>의 주장과 상충하지 않는군.

명시적 근거	<보기>, (가) 3문단 전체
실전에서의 판단 과정	에이어랑 똑같은 말 하는 거였지.
해설	<p>‘에이어’는 ‘도둑질은 나쁘다.’와 같은 ‘도덕 문장’은 ‘나쁘다.’와 같은 ‘도덕 용어’가 화자의 정서를 표출하는 ‘표현적 용법’으로 사용된 것이므로 ‘진리 적합성’이 없다는 주장을 펼쳤습니다. 이와 유사하게, &lt;보기&gt;의 글쓴이는 폭력에 대한 화자의 태도를 표현하는 문장이 참, 거짓일 수 없다는 주장을 펼쳤죠? 이들의 주장은 상충하지 않는다고 할 수 있습니다.</p>

선지	①	②	③	④	⑤
선택률	4%	84%	4%	5%	3%

17. 문맥상 ㉠~㉢와 바꿔 쓰기에 가장 적절한 것은? ㉡

- ① ㉠ : 수색하는
- ② ㉡ : 제지하지
- ③ ㉢ : 전파했다
- ④ ㉣ : 발산하는
- ⑤ ㉤ : 공개하여

물랐던 어휘 정리하기

**\*핵심 point\***

- ① 화제 check : 독서 지문 독해의 처음이자 끝. 첫 문단에서 잡은 ‘화제의 틀’을 마지막 문단까지 놓지 않아야 합니다.
- ② 정의 인식 : 단어의 의미를 살린 상태로, 지문에 제시된 정의와 붙여서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정의를 ‘기억’하는 게 아니라, ‘납득’해서 본인의 말로 정리할 수 있어야 해요.
- ③ 재진술 인식 : 같은 말이라도 다르게 표현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심지어 아예 똑같은 말이 반복되는 경우도 많아요. 이 ‘같은 말’에 민감하게 반응하면, ‘정보량’을 줄이면서 읽을 수가 있습니다.



④ 사례-원리 연결 : 모든 사례는 어떠한 추상적인 원리를 구체화하는 역할을 합니다. 둘을 연결지으며 확실하게 이해하고 가는 태도가 중요합니다.

**\*지문 내용 총정리\***

추상적으로 제시되는 한마디의 주장을 구체적인 사례들을 통해 이해할 수 있는지 물어보는 형태의 지문이었습니다. 인문 제재의 지문에 익숙하지 않은 학생들에게는 비슷한 듯 다른 말들이 반복되는 지옥 같은 지문으로 느껴졌을 거예요. 굉장히 어려운 지문인 것은 확실하니, 해설지의 내용을 본인이 스스로 다 생각해낼 수 있을 때까지 완벽하게 복습해보도록 합시다. 수능에 출제되는 인문 제재의 지문은 쉬웠던 적이 거의 없다는 것을 꼭 기억하세요.